



금강산

1

주제 107(2018)
루체 제341호 월간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정서적으로 (♩=66)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common time (♩=66).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Cm chord.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an Fm6 chord. The third staff starts with a B♭7 chord. The fourth staff starts with a Cm chord. The lyrics are as follows:

1. 별 뜨 는 밤 오 - 셨 던 길 동이 틀 때 또 오 시 며 인
민 위해 바 - 치 시 는 그 은 정 커 만 가 네 갈 수
록 가슴 젓는 고마운 생각 갈 수 록 더 잘 모실 - 불 타는 생 - 각 안녕
만 을 바라는 마음 자나 - 깨나 원수님 생각

2. 만나보신 사람마다 아쉬움이 있을세라
주신 사랑 또 주시며 심혈을 다하시네
(후렴)

3. 천만자식 꿈과 리상 모두 안아 풀펴주는
그이 품은 우리의 집 인민의 정든 요람
(후렴)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듯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하여 평양의 밤하늘에 환희의 축포가 터져 오른다.

본사기자 임정국

차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3
우리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4
일화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8
위인을 모셔야 강대하다	9
확정적인 승리는	10
- 공화국의 70년 -	
새 조국건설의 3대로선을 제시하시여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930년 여름	12
운동선발생산에 힘을 넣는다	14
더 많은 승강기를	17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우리가	18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20
천연생물활성제, 세계적 발명권을 받다	22
참관기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1)	24
환희와 락관을 더해줄 새해	28
땀방울의 무게에 의해	30
마흔두살팅기가 희날리는 뼈역	32
편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33
고향소식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고장	34



31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의 목표를 위하여	36
력사인물	
애국문화운동가 리기	37
인상기	
아름다운 나라	38
잊지 못할 철보상관왕의 나날	38
반전 반미, 통일운동의 앞장에서	39
《조선은 전세계의 모범국이며 스승이다》	40
변함없는 애국애족의 한길로	41
지워지지 않는 모습	42
고려의 민족음악	43
조국의 천연기념물 (12)	44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46
민족의 향기	
제손으로 평양온반을 만들어	47
불치병인 암에 도전한 약	48
사화	
송씨의 아들교양	49
민족자주에 조국통일이 있다	50
기만극	51
야화	
달녀와 사슴	52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53
패배자의 물골, 역사와 진실	54
조미대결, 세계의 평	56
상식	
우리 나라의 첫 장	19
종로년기 사람들의 장수비결 7가지	23
중세 말기 여러가지 천의 명산지	40
유모아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31
조선속단 (굼뜸)	40



46



54

우리 나라의 첫 장	19
종로년기 사람들의 장수비결 7가지	23
중세 말기 여러가지 천의 명산지	40
유모아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31
조선속단 (굼뜸)	40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경사로 환희도 뜨거웠고 원쑤들에 의해 고난과 시련도 많았던 해 주체106(2017)년!

정녕 여러분과 온 한해 마음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맞추어 걸어온 주체106(2017)년이여서 이토록 마음속깊이 여운을 남기는것인지.

지난 한해의 모든 성과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룩될 수 있었기에 우리 맞이한 이 새해가 그토록 가슴벅차 오르는것입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풍처 전체 인민이 일떠서면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고 뚫지 못할 시련과 난관이 없기에 마주오는 새해조차 광휘로 빛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떠받들려 보내는 인사도 더더욱 뜨거워 잡지 《금수강산》의 전체 성원들은 새해의 이아침 해외동포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운 정을 담아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지난해 태양절, 광명성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들과 중요계기때마다 여러분은 축하단과 예술단 등을 끊고 조국을 찾았으며 많은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도 보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는 조국인민들과 걸음도 마음도 함께 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승리적으로 걸어온 한해를 보내고 보다 큰 승리가 마련될 새해를 맞이하고보니 동포여러분과 함께 우리모두가 손잡고 신심드높이 걸어갈 희망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맞이한 주체107(2018)년도 조국청사에 뜻깊은 해로 빛나게 장식될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돐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 싶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

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보기 좋게 짓뭉개놓고 수십년동안의 재재와 압박도 무용지물로 만들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가슴을 쭉 뻐고 살고있는것은 사회주의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만리마속도로 비약해나가는 존엄높은 조국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우리 마음의 금선을 울리며 《조국찬가》의 노래선률이 은은하게 울려오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파도 같은 우리 조국이 누구나의 가슴속에 소중한 어머니의 품으로 안겨오는것은 파연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바로 우리 민족모두가 안겨살 위대한 품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공화국은 온 세상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려 흡모하여 따르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이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에도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우리 《금수강산》잡지는 뜻깊은 올해에도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서 이룩한 성과들,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비롯한 조국소식들과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0월

우리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새해 주체107(2018)년이 시작된 눈부신 이 아침에 노래 《우리 앞날 밝다》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스스럼없이, 꾸밈없이 말하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니 세계는 전진하는 사회주의를 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릇 사람들은 아이들의 웃음에는 그 사회의 모습이 비낀다고 말하고 있다.

큰 메아리로 울리는 그들의 웃음속에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후대들의 교육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하셔야 할 일이 많고 가보셔야 할 곳도 많으시였지만 소년단넥타이를 매시고 조선소년단체7차대회에도 참석하시였고 아이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시였으며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를 하늘가득 펼쳐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무려 스무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2만여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지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

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받드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온 나라에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이 활짝 열렸고 우리 조국을 어째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평양가방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옥류아동병원 등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북부해지역 아이들에게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의 즐거운 야영생활이 펼쳐졌다.

전국의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원아들의 기쁨, 묵향산의 등산길을 걸으며 야영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받아안은 꿈같은 사랑의 이야기, 학생소년들이 올리는 미숙한 편지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들에 깃든 사연,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그러나 우리 원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끓이신것이 있었다. 전쟁을 모르는 후대, 핵위협을 모르는 후대,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원수님 언제나 전초선에 서계시였고 핵억제력을 다지는 위험천만한 곳에도 서계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후대사랑이 있어 조국땅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그칠줄을 몰랐고 그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곧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전설을 안고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으로 되었다.

천지개벽, 천도개벽

조선말대사전을 펼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1년을 10년 맞잡아 달리는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이미 그 말이 먼 옛말로 되여버렸다.

자기의 성실한 땀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황금해, 황금산, 황금벌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은 만리마 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를 비롯

한 시대어들도 탄생시켰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창조하며 질풍같이 달려온 우리 조국의 기상은 말그대로 출기차고 억세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건설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불철주야로 헌신의 자욱들을 남기시였다.

인민의 운명과 존엄, 행복을 지켜가시며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우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미처 다 세여볼수 없다.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연풍과학자휴양소, 라선땅의 선경마을, 려명거리…

해마다 변이 나는 나라, 날파 달이 기적으로 충만된 조국땅에서 기적의 첫자리는 려명거리가 차지할것이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조국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파의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던 력사의 그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파시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

12년제무료의무교육의 혜택야래





혁명거리의 밤

전과정을 지도하시며 때로는 하늘길에 오르시여, 때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혁명거리는 만리마의 속도를 창조하며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조국땅에 보통때, 보통날에도 이루기 힘든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새로운 기적과 사변들을 최악의 시련속에서, 원쑤들이 미친듯이 벌려놓은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이루어놓은 천만군민은 심장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웨치고 있다.

백두의 뇌성

오늘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미제와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책동은 사상최고를 이루었다.

하건만 외국의 군사평론가들이 공화국을 《가

장 안전한 지대》로 꼽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에 있다.

강국에 대한 평가는 땅덩어리의 크기나 인구수, 로케트나 핵탄에 있는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수도 많으며 가지고있을 핵전략자산들을 다 가지고있다는 대국들도 미국이라는 나라앞에서는 절절 기고있다.

하지만 세상에 오직 유일무이하게 조선만이 미국의 쿄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놓으며 제 할 소리를 다하고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있다.

무엇이 좀 있다고 하여 누구나 다 강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백승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적들을 다불려대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지력을 지닌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만이 나라도 강국의 지위에 오를수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획책

하고있던 2012년 8월 서해열점수역의 섭방어대들을 시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령도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무모한 도발광기를 부리던 원쑤들을 호되게 답새기고 기를 꺾어놓는 백두산호랑이의 무서운 불호령이였다.

원쑤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련속공격전과 무릎을 꿇을 때까지 답새기는 드센 타격력으로 적들을 기절초풍케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구실로 미제가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을 때에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으며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듯

련이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지난해 2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은 《전략자산의 총투입》이니, 《사상최대규모》니 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불구름을 몰아오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불의 노성을 터뜨렸다.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고생도 시련도 달게 나누고 신변의 위험마저 아랑곳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켰다.

백두의 뇌성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고 다져주신 강위력한 국방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겨레의 행복한 삶도 있다고.

신심과 락관의 래일

돌이켜볼수록 심장의 숨결이 드높아진다.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이 통채로 침략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히게 되는것이 어제는 물론 오늘도 지구상의 도처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현실이다.

파거 조선민족의 운명이 바로 그려하였다. 하지만 오늘 조국의 지위는 최강의 군력에 떠받들려 불패의 핵강국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람홍색공화국기가 무궁도록 휘날리고 후대들이 대대손손 만복을 누려가고 있다.

끊임없이 몰려오던 침략의 불구름이 조선반도상공에서 맥빠진 거품처럼 잣아버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질수 있은것은 강위력한 군력을 다져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

할수 없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는 후대들이 미국놈들의 해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대에 강위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힘들지만 사생결단의 의지로 이 길을 가고있다고, 우리는 명예를 바라고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조국인민들을 기쁘게 하고 만리마속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주며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들과 전변들이 래일을 속삭이고 있는듯 하다.

혁명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평범한 대학교원인 김정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심과 락관을 안고 우리는 웃음속에 래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웃음은 승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지을수 있다. 승리자들만이 신심에 넘쳐 앞날을 락관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인민들이 래일의 승리를 락관하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에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었으며 도처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온 나라에는 전민학습열풍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고 일터마다에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어나가고 있다.

모든것을 자기의 자원과 기술, 힘에 의거하여 만들어내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

제의 토대가 튼튼히 꾸려져있기에 경제강국은 지체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내세워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지만 조국인민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든 일터마다에서 나날이 눈부신 비약만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우리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온 지난 6년간을 돌이켜보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래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흥하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위인을 모셔야 강대하다

세계에는 강국,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파연 강국, 대국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자기의 리해관계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체면도 주견도 없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제재결의》들에 손을 드는 나라들이 무슨 강국, 대국이겠습니까.

그리고보면 강국, 대국의 징표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그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오늘 공화국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꿋꿋이 전진하고있습니다.

세계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압살, 핵전쟁위협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찬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야말로 진짜 대국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원자탄이나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트가 있기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무비의 담력

파 배짱, 천재적인 지략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핵공격을 영원히 끌장내고 인민의 번영할 래일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면서도 국방력강화에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나가시여 국방과학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그들의 연구사업을 고무추동해주신 그이이십니다. 그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 우리 나라는 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에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해 온갖 제재와 위협을 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놀라거나 주저하지 않고 미국에 땅땅 맞서 그들의 파멸을 선고하며 자주권과 존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입니다. 그 어떤 강적의 전횡과 도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맞닥뜨려도 끄떡하지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맞받아나가는 공화국의 배짱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이고 배짱입니다.

정말이지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정치무대에서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으며 조미대결구도는 완전히 바뀌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그이께서는 조국땅

우에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고계십니다. 미국과 제국주의



련합세력이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악랄하게 조이고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바라는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입니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를 친품으로 지니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 혁명거리,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평양가방공장 등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넓은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모든 현실은 타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작은 나라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대국이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나는 금속공업부문의 한 일군으로서 새해에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하여 나라의 국방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금속공업성 국장 최성칠

확정적인 승리는

오늘 조국땅우에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날이 훌러가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력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다.

미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두차례의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의 성공이후 얼마 안되어 또 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대성공하였다.

몇해 안되는 사이에 조국이 그렇게도 빨리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위력으로 인민경제가 장성하였다.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며 조건이 좋았어서 이룩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타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로 포악해지는 적대 세력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첫 수소탄시험과 핵무기병기화사업,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등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할 때마다 현지에 나가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무기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철한 가르침지도 주시며 새형의 첨단무기개발사업들을 지도해주시였다.

우리식의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혼신의 낫파 밤을 보내신 그이의 로고에 의하여 조국의 로케트공업은 견본모방형으로부터 개발창조형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그리시고도 그 모든 공로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려주신 그이이시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

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을 상상할수 없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련속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 할수 있었다.

최근년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 국제재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국의 자위적핵무장력강화조치들을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냈다.

하지만 조국인민은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적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단위들을 찾으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는 조국인민의 자강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조국의 힘찬 전진을 한사코 막아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해지는 속에서도 조국인민은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보건산소공장, 통약산비누공장, 평양가방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많은 단위들이 일떠서거나 개건 되였다.

하기에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나라를 이끄신 몇해사이에 조선은 완전히 변모되었다, 전략적지위도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 어떤 사변들을 이룩하겠는지 국제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 할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앞을 다투어 전하고있다.

오늘의 승리를 통하여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나갈 때 적들의 침략책동도 제재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며 최후승리를 확정적으로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 공화국의 70년 -

올해 9월 9일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70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편집부는 이날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어온 공화국의 력사를 더듬어본다.

새 조국건설의 3대로선을 제시하시여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되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빛을 잃었던 삼천리강산은 해방의 환희로 설레였다. 해방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건국열의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인민은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나라안팎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계급적원쑤들은 각종 반동적정당들과 단체들을 조직하고 인민을 반동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였고 종파분자,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저마다 『혁명가』,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느니,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 조국건설의 앞길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해방된 조국에서는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3대파업을 제시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어 해방된 조선은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아가거나 봉건제도를 복구해서는 안되며 부르죠아제도를 수립해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3대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였다.

대중적지반이 다져지고 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는데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하여 인민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정치적참모부, 향도적력량을 가지게 되였다.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 그이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민족자주적인 정권을 세우심으로써 우리인민을 자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친 인민으로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히 내세워주시였다.

각이한 주의주장이 란무하고 정세가 침예하던 그때 그이께서는 북반부에 인민의 정권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기 손으로 지방주권기관들을 세우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해방이 된지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도, 시, 군, 면, 리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였으며 주체35(1946)년 2월에는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게 되였다.

인민주권아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되었다.

주체37(1948)년에 이르러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조성된 정세를 분석통찰하신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미제의 단독『정부』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키며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헌법과 국기, 국장의 제정등 공화국창건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토대우에서 주체37(1948)년 8월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님을 내각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자주권을 확고히 틀어쥔 인민으로 되였다.

해방후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그이께서 최대의 의의를 부여하시고 최선의 힘을 넣으신것이 국방사업, 자기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갈 강력한 혁명군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였다. 그이의 심혈과 로고속에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인 평양학원이 창립되고 수상보안대가 창설된데 이어 육해공군의 모체부대들과 함께 각 기술병종부대들을 조직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손으로 여러가지 전투기술기재들도 만들어내게 되였다. 이러한 충분한 준비밑에 마침내 주체37(1948)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은 우리 나라에서의 첫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현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파업은 민족의 오늘을 결정하고 조국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해주는것이였다.

본사기자 변진혁



(전호에서 계속)

나는 누구부터 찾아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독립군시절에 중대장을 하던 장철호한테 먼저 들리였다.

국민부가 나온 후 독립군의 상충과 결별하고 군복을 벗어던진 그는 교하에 내려와서 정미소를 차려놓고 영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 아간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를 무척 사랑해주던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애국지사였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조직성원을 만날 때 까지 럼시로 몸을 불이고 지낼수 있는 생활거처가 필요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왔다고 몹시 반가와하면서도 집에 숨어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좀 겁을 먹고있는것 같은 눈치이기에 나도 찾아온 사유를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리재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하여도 려관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잘 후원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도 역시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는 하였지만 중국음식점에 데리고가서 교즈 한그릇을 사먹이고나서는 갈라지자고 하였다.

그 당시 나에게는 한두끼의 식사보다도 숨어 있을만 한 거처가 더 필요하였다. 그 사람도 내가 찾아왔으면 그런 눈치를 모를리 없건만 하루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없이 그저 잘 가라고만 하였다. 그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화가 미칠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는 다 저버리였던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사상적결합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친구도 다 소용없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나 인정만 가지고서는 혁명투쟁을 함께 해나갈수 없다는것이 그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이였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

적결렬이 생기게 되는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뉴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수가 없다는것이 그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리재순과 헤여진 나는 한팡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한팡은 어데 피신했을수 있지만 한영애는 너자이기때문에 집에 있지 않겠는가, 그가 내 형편을 알기만 하면 목숨을 내대고 도와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들었다.

그러나 집에는 한팡도 없고 한영애도 없었다.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행처를 물어보았더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청년들중에서 운동이나 좀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으니 이제는 찾아갈데도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고자질했는지 경찰들이 막 뒤쫓아오고있었다. 이제는 잡혔구나 하고 내자신도 사태를 아주 절망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 한팡의 옆집녀자가 그래도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주었다. 그 아주머니는 나에게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변이 위험한것 같은데 어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업고있던 아이를 재빨리 업혀주었다. 그리고는 《대답은 내가 다할테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나 때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의 내가 아이아버지처럼 위장해도 일 없으리만큼 나이보다 펴그나 속성했던 모양이였다.

나는 등에 아이를 업은채 부지깽이를 들고 부엌봉당에 앉아 그녀자가 시키는 역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혁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위험한 순간도 적지 않게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처음으로 당해보았다.

경찰들은 문을 열어제끼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방금 이리로 온 청년이 어디로 갔는가?》고 물었다.

그 녀자는 《청년이라니, 어떤 청년말입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하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중국말로 넌지시 아무도 없으니 들어와서 밥이나 자시겠으면 자시라고 하였다.

등에 업힌 아이는 낮이 설다고 자꾸만 울었다. 그 아이를 달래기는 달래야겠는데 서투르게 달래다가는 정체가 드러날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지깽이로 아궁이만 뒤적거렸다.

경찰은 어디로 뛰었을가, 잘못보지 않았는가고 저희들끼리 떠벌이다가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경찰들이 마을에서 떠나갈 때까지 <주인> 노릇을 더 해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밭에 나가있는데 들어오라고 알리겠으니 마음놓고있다가 그이가 온 다음 함께 대책을 의논해봅시다.》 그리고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밭에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후 경찰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더러 심부름을 시킬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을 가겠습니까. 정 바쁜 일이라면 내가 대신 갔다오지요.》하고는 나대신 놈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다 들어주고 돌아왔다.

이처럼 나는 그녀자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소박한 촌녀성이였지만 참으로 기발하고 지혜가 있었다. 혁명의식도 상당히 높은 녀성이였다.

나는 이 이름모를 녀인의 모습에서 지울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를 믿고 찾았던 아버지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생판모르는 그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오로지 혁명가를 돋는다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처럼 희생적으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준것이다. 사람이란 어려운 때에 그 진가를 알아볼수 있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늘 전우들에게 혁명을 하다가 곤난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배고파도 인민을 찾아

가고 물을 먹고싶어도 인민을 찾아가며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아주머니였다.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싶은 심정이다.

그해 겨울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이 오가자에 모여 회의를 할 때 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성주동무는 운이 좋아. 운이 좋으니까 하늘이 도운거지.》하였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봉변을 면한것이 아니라 인민이 좋아서 군벌에게 잡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인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교하의 아주머니》라는 말은 슬기롭고 희생적인 우리 인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 어려운 고비에서 자기를 희생시켜 혁명가를 도와주는것이 체질로 되어있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뜻깊은 대명사로 되였다.

나는 지금도 폭양에 그슬리고 퍼로 얼룩지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를 생각하고 잊을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그려보군 한다. 수십년을 두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종적을 찾을수 없는 그녀인을 회고할 때면 60년전 그날 그 아주머니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홀연히 교하땅을 떠난 실수를 두고 가슴아픈 자책에 잠기곤 한다.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온 세상에 광고라도 낼수 있지 않겠는가.

해방후 지금까지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은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역에서 살다가 헤여진지 반세기만에 백발로인으로 나타난 은인들도 있었다.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준 적지 않은 은인들이 나를 만났고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서 고맙다는 나의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교하의 그 아주머니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주머니 자신은 1930년 여름에 있었던 극적인 순간을 범상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죄다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른다.

60년전의 은인은 아무런 소식도 자취도 없이 대지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좋은 옥일수록 땅속에 깊이 묻히는 법이다.

(다음호에 계속)



운동신발생산에 힘을 넣는다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개건된 류원신발 공장에서 각종 운동신발과 종목별 전문체육신발들이 생산되고 있다. 신발은 지난 시기에 비해 보다 질좋고 맵시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 임의 응은 말하였다.

《우리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자체

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개건한 궁지와 보람을 더 크게 느끼군 한다. 물론 공장개건의 나날들은 매우 힘겨웠다. 제화흐름선을 비롯하여 87종에 1 600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설치해야 하니 더욱 그하였지만 해놓고보니 인민들이 좋아하는 신발을 보다 많이 생산할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리면서 그는 지금 공장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개

건공사를 훌륭히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업 판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통합생산지령실, 재단직장, 제화직장, 도안실 등 공장의 그 어디서나 질좋고 맵시있는 제품생산열기로 끓고 있었다. 통합생산지령실에서는 공장안의 모든 생산 및 운영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하

며 생산과 품질의 최량화에 모를 박고있었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에서는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가 기본이라고 하였다.

재단직장에서는 레이자재단기로 여러가지 복잡한 모양의 신발부분품들을 손쉽게 재단하는가 하면 깔창형잡이기, 신울편집기, 신



울압착기, 채본인쇄기 등에서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디색화를 위한 재단품과 장식품들을 련속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화직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제화흐름선을 축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단능설비들을 더 설치하고 순차흐름으로 신발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제화직장장 리만성은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 설치된 설비들이 다 그려 하지만 이 제화흐름선의 성능은 대단히 좋다. 지난 시기의 수입 산설비에 비해 전력소비가 절반이나 낮고 자동조종으로 되어 있으며 중요하게는 신발의 접착 세기를 거의 2배나 높일수 있다.》라고 하였다.

원료준비직장, 사출직장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사출직장에서는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초림계탄산가스발생 및 주입

장치를 단색창사출기에 결합시킴으로써 염화비닐창무게를 현저히 줄이고 신발의 경량화를 실현해가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의 첫 공정이 도안이며 그 질과 맵시 또한 도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십 가지의 가치있는 신발도안들이 창안되어 제품으로 실현되었다.

공장일군은 말하였다.

《지금 우리 공장일군들의 생산열의는 대단하다. 그 양 양된 열의속에 우리는 생산을



제품검사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도 경매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체육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전문체육신발들을 더 질좋고 맵시있게 만들데 대하여 주신 파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 겠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더 많은 승강기를

평양승강기공장의 로동계급이 승강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에서는 승강기생산의 정상화를 주체화에서 찾고 이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지혜를 합쳐 만든 하워크 속도기는 그려하였다.

하워크 속도기는 승강기제작에서 주요핵심설비인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대담하게 믿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술발전과장 리선, 설계원 차재록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하워크 속도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승강기생산의 주체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승강기 PC조종체계를 개발도입하

고 새형의 승강기문자동장치와 배전반, 1%미그램안내, 2%안전잡이, 2%속도제한기 등을 새롭게 제작, 개발완성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승강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설비의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여 CNC유압절단기를 새로 제작하고 CNC수직후라이스를 개작하여 설비의 부속품생산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기술혁신은 가공직장, 조립직장, 제관직장 등 여러 직장들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승강기 가공품을 맡은 가공직장의 로동자 신영철은 새로운

형의 바이트를 제작하여 내면 치차가공을 더욱 정밀하게 하여 2t, 5t천정기중기제작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군인 김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파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여 승강기생산의 주체화를 더욱 다그쳐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형태의 승강기와 천정기중기, 수평팔탑식기중기는 건설장들에 보내여지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룡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동평양화력발전소 청년들에 의하여 연구완성된 고온공기에 의한 무연탄착화기술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와 만난 발전소의 청년기술자인 손덕철은 말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연구완성한 고온공기에 의한 무연탄착화기술은 수입에 의존하던 중유를 쓰지 않고 보이라착화를 손쉽게 할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연구성과이다. 이제는 중유가 없어도 전력생산을 안전하게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부 사람들은 청년들의 힘으로 해내겠는가 하고 우려도 하였지만 자기들은 수입원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안고 연구를 거듭하였다고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보이라의 연소도관에 슬라크가 부착되는것이였는데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끝에 기술발전과의 리충성, 강룡남, 문철준 등 청년들의 지혜가 합쳐진 기발한 착상이 나오게 되였는데 그것은

과학기술학습을 진행한다.



그처럼 애를 먹이던 연구파제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였다.

이미 있던 천정기중기들을 새로 제작설치할 때에도 바로 그려했다. 사실 그 천정기중기들은 오래된것이여서 발전소에서는 전문공장에 의뢰하여 한두대씩 교체할것을 타산하고있었다. 하지만 이곳 청년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지혜를 합쳐 자체의 힘으로 천정기중기를 설계하고 제작할뿐아니라 그것도 근 20대 모두를 동시에 설치할것을 결의다지였다. 천정기중기 한대를 제작하는데 한달이 걸린다면 종전의 판례를 깨버리고 청년들은 석달

동안에 현대적인 천정기중기를 전부 제작하여 설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과는 열생산직장, 열보수직장, 타빈직장 등의 평범한 로동청년들속에서도 이룩되고있다. 특히 열생산직장의 안철남, 김충선은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여러가지 설비들의 축교정방법을

새롭게 연구완성하여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열보수직장에서는 수십일간이나 걸려야 할 공기예열기를 단 7일동안에 만들어 놓았다.

열보수직장에서 일어번지는 혁신의 앞장에는 청년들인 박일광, 박일진형제도 있다. 형인 박일광은 손꼽히는 용접공이다. 기능도 높고 일솜씨도 빠른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려나가고 있다.

그는 공기예열기제작의 용접은 거의나 맡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생인 박일진 역시 보온공으로서 보온은 그가 해야 등탈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능이 높아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청년들은 발전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그들은 수영관을 새로 건설하고 공장구내를 일신하는 등 방대한 공사를 한달이라는 기간에 다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상식

우리 나라의 첫 장

우리 나라에서 물물교환 또는 화폐에 의한 교환과 매매의 역사는 오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이 처음 등장한것은 5세기말이다.

그 당시 전라도의 무안, 라주 등지에는 큰 흥년이 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한달에 두번정도 읍에 모여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이것을 『장문』이라고 하였다.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민과 수공업자들로서 생

계유지가 목적이였다. 시장은 몇개 마을사람들이 하루에 갔다올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에 설치되었다.

초기의 장은 15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열렸으나 점차 5일간격으로 열리게 되었다. 17~18세기경부터 장은 더욱 변창하여 산간벽지에도 장이 생겼으며 18세기 중반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장이 1 000여곳에나 있었다.

* * *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토성제약공장은 조국에서 이름있는 의약품생산기지의 하나이다.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동에 있는 공장에서는 토성청혈환, 인삼간염교감약, 매발톱나무열매약술을 비롯하여 60여 가지의 약들을 생산하고 있다.

지배인이면서 약품개발자이기도 한 김영권이 만든 토성청혈환은 몸안의 피와 피출을 점검하며 피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정상으로 낮추고 피를 맑게 하는 독특한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토성청혈환뿐이 아니다.

단삼지령이혈전교감약, 귀비환, 십전대보환, 보중익기환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만드는 많은

고려약들이 우리나라의 천연원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GMP)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내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의회



균화, 무진화,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맞게 품질이 담보된 정확한 원료자재의 출고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성과 품질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는 매주 1차씩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규정을 잘 알도록 하며 그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정성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품평회도 자주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고려약의 약리작용과 약성을 학적으로 결합하고 고려약을 엑스화하여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생산원가를 줄이면서 치료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일군들이 앞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이 약이 개발되면 생산원가와 고려약의 먹는 량을 줄이면서도 치료효과는 30%이상 높일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들만이 아니다. 기술준비실의 실장 최명옥, 기술준비원 김미란 등도 치료효과가 높은 주사약과 연고를 비롯한 의약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임기사 김영무는 말하였다.

『오늘 고려약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흔한 원료에 의거한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려약들은 효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국제, 국내전람회들과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



천연생물활성제, 세계적 발명권을 받다

지난해 7월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한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유선옥, 연구사들인 김인철, 박성삼, 김은주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보내온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을 받는 2. 16과학기술상수상자이며 공훈과학자인 유선옥(64살)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어언 40년세월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유기비료, 농약, 집진승강장활성제를 연구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떠올랐기때문이다.

유선옥실장이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할 생각을 한것은 주체89(2000)년부터였다.

이미전에 식물성농약 《명록》을 개발하여 온 나라에 이름이 자자하였던 그는 화학비료를 쓰면 쓸수록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지력이 낮아지는것을 보고 만 있을수 없어 대담하게 생물비료연구에 달라붙었다.

당시 세계적추세도 화학비료를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고 유기비료를 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유선옥실장은 농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기농법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선옥실장과 연구사들은 전국의 협동농장들과 온실들에 나가 현실속에서 연구를 심화시켰다.

알곡작물들에 분무하여 엽록소함량과 질소함량 등을 측정하였다. 가정과 연구라는 무거운 부담을 두어깨에 걸더지고 기쁨보다도 실패의 쓴맛을 볼 때가 많았지만 그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오랜 세월 묵묵히 생물비료연구를 하였다. 연구사들인 김인철, 박성삼, 김은주도 실장을 적극 도와나섰다.

하여 끝끝내 주체99(2010)년 조국의 천연자원을 리용한 다기능적인 무공해천연록색활성제인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하였다.

사람들과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식물의 빛합성 능력과 뿌리활성을 높여주는 이 생물비료는 가물피해와 랭해를 막는데 좋을뿐아니라 탄저병, 흰잎마름병, 뿌리썩음병, 떡잎병 등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컸다.

가물때나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사해기가 늦어질 때 등의 경우에 이 천연생물활성제 1~2kg을 500~1000배의 물에 풀어 1정보의 포전에 일덕비료로 여러번 분무해주면 알곡작물 특히 남새 작물의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

천연생물활성제는 나오자마자 농업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으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식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천연생물활성제

며 전국각지의 농촌들에 도입은 이 천연생물활성제가 알곡 되였다.

활성제를 써본 많은 사람들 배 등에도 아주 좋다고 이구동

상식

중로년기 사람들의 장수비결 7가지

의학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중로년기사람들이 건강장수하려면 다음의 7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한다.

① 대뇌의 활력을 보장해야 한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레를 들면 독서와 독보를 계속하고 그림그리기, 장기돌이 등 여러가지 취미를 가져야 한다.

② 손가락을 자주 놀려야 한다.

손가락을 자주 놀리고 두손을 엇바꾸어 쓰면 대뇌좌우반구를 자극할수 있어 지력을 높이는데 좋을뿐아니라 대뇌의 로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성질이 다른 활동을 엇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일과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제때에 자고 제때에 일어나며 매일

8시간의 수면을 보장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성으로 말하고있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연생물활성제를 리용하니 팔뚝만한 오이가 달리고 도마도도 더 빨갛게 익었다. 몇년 동안 활성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정말 이것을 만든 식물학연구소 연구사들에게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이 천연생물활성제에 대한 수요는 지경너머에서도 높아가고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선옥실장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⑥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흰쌀이나 밀가루, 잡곡을 섞어먹고 비타민과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추, 우유, 콩물, 단알노란자위, 참깨, 검정귀버섯, 돼지염통, 배합, 뽕나무열매(오디), 돼지뇌, 겨자, 호두씨 그리고 남새와 파일을 많이 먹고 동물성지방과 당류가 들어있는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한다.

⑦ 듣기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악기를 다루어야 한다.

아름다운 선률은 대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기분이 상쾌해지게 한다.

* * *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 (1)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자랑하는 조선민족은 장구한 기간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창조적 재능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자랑찬 회화적 재부들도 수많이 창조하였다. 얼마 전 우리는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된 옛 미술작품들과 현대미술작품들을 보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가 참관자들과 함께 박물관 1호실에 들어서니 조선민족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 시기의 안악3호무덤벽화가 먼저 눈에 띠었다. 우리가 호기심을 안고 벽화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악3호무덤은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입니다. 보다 심이 안악3호무덤의 벽화는 왕이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

으며 지시를 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정사도〉인데 화가는 쪼아낸 돌벽우에 회죽으로 얇게 바탕을 조성하고 그 위에 선으로 먼저 형태를 그은 다음 색칠하고 다시 선으로 형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고구려 시기에 벌써 조선화화법체계를 정연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것과 그 발전면모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벽화의 〈행렬도〉와 〈부엌〉, 〈방아간〉 등의 생활적인 그림들과 함께 약수리무덤벽화를 보며 2호실에 들어섰다. 2호실에도 역시 5세기 중엽~6세기 후반기에 축조된 장천1호 무덤과 안악2호무덤 등의 벽화들이 있었다. 수산리무덤벽화가 특색있었다. 벽화에는 〈주인공과 광대〉가 그려져 있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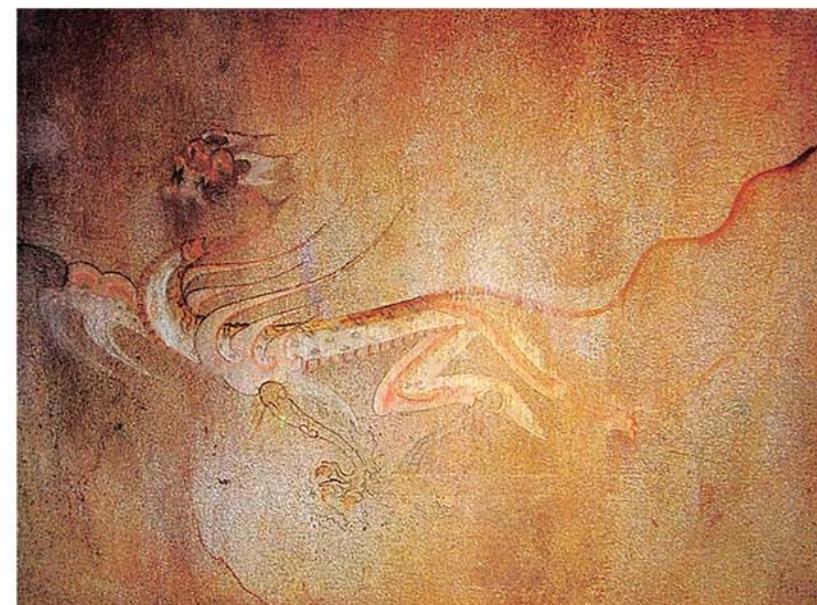
데 그림의 섬세하고 정교로운 선들과 세련된 색칠구사 등은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였다. 놀라움은 3호실에 전시된 강서제 무덤벽화에 그려진 사신도인 청룡과 백호, 현무, 주작에서도 보다 더 느낄 수 있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벽화는 고구려 회화 예술의 절정을 이루는 걸작일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민족회화의 유구성과 우수성, 독자성을 잘 알게 한다고 한다.

이어 우리는 왕건왕릉벽화와 경효왕릉벽화 등과 고려청자기가 전시된 4호실에 들어섰다. 이곳의 벽화들은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을 계승하고 있었다. 참관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청자기였다.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그 장식수법이 독특하였는데 상감수법은 고려자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였다.

안악3호무덤의 서쪽 결칸 서쪽벽의 〈정사도〉



강서중무덤의 안칸 서쪽벽의 〈백호〉



5호실에는 조선봉건왕조 시기인 15세기-17세기의 미술작

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표로 생동하게 그린 안견의 그림 작은 통의 기상을 힘 있는 필치 『통』과 바위 위에 앉아 있는 한

집안중무덤의 〈사냥〉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자기의 일부

쌍의 새와 꽃을 거침없는 물골 기법으로 묘사한 리상좌의 그림 《꽃과 새》였다. 황집중이 그린 《포도》와 리정의 《참대》 등도 그 실체를 보는듯이 질감이 있었고 신사임당이 그린 《가지》는 여성화가의 부드럽고 섬

세한 필치를 느끼게 하였다. 작품들을 보면 이 시기는 자연을 묘사대상으로 그리면서 조선화의 표현수법들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그림은 크지 않으나 선명하고 아담하면서도 담담

한것이 특징인 리경윤의 그림 《대와 학》과 함께 대대로 소를 잘 그리는 화가의 집에서 태여나 소와 목동을 잘 그린 김식의 그림 《소탄 아이》를 보며 6호실로 향하였다.

6호실에서 강사는 우리에게 18세기는 조선봉건왕조회화사에서 전성기였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실주의풍경화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정선의 그림 《구룡폭포》, 《너럭바위》, 《옹천의 파도》 등을 가리켰다.

그의 그림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화가가 이전의 도식에서 벗어나 조국의 명승지들과 고향산천의 풍경을 구체적인 제목을 달고 보여줌으로써 중세 풍경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화가가 지녔던 조국애와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미술문화를 보다 올려세우려는 그의 의식적인 노력을 엿볼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7호실에 전시된 사실주의적인 인물

김홍도의 작품 《집짓기》



안견의 작품 《룡》



풍속화발전에서 선구자였던 김두량의 작품들은 농촌의 정서를 잘 살리고있었다. 특히 그의 그림 《소몰이군》은 현실그대로의 농민의 생활을 그리고있었는데 묘사대상이 간단명백할뿐 아니라 묘사기법 또한 간결하고 선명하였다.

8호실에 전시된 심사정파 리린상, 최북파 김득신 등의 그림들도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우리는 9호실에서 중세 사실주의회화창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수많은 걸작들을 남겨놓은 김홍도의 그림들과 풍경화의 대가였던 리인문의 그림 등을 돌아보았다. 김홍도의 그림들은 인물화, 풍경화, 화조화 등의 모든 분야를 이루며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였다면 리인문의 풍경화들은 당대 사회현실과 결합시켜 자연을 폭넓게 보여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능숙한 묘사력, 간결하고 집약화된 묘한 필치로, 묘사에서 근대적인 원근화법을 새로 도입하여 조선



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림들은 보면 볼수록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민족의 정서와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체현된 조선화기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사회제도와 생활, 독특한 생활풍습, 자연 등에 반영하여 발전시켜왔으며 그 과정에 훌륭한 미술문화적재부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하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김두량의 작품 《소몰이군》



환희와 락관을 더해줄 새해

아침파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땅에 주체107(2018)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거리를 오가거나 빠스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새해와 더불어 부푸는 새로운 꿈과 희망,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다면 이 땅에 넘쳐흐르는 이 환희와 랑만, 락관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그것은 새해에도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남김없이 떨쳐지리라는 기대와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와 만난 의학연구원 실장 김영남은 《새해의 문어구》에 들어서며 궁지로왔던 주체106(2017)년을 돌이켜 볼수록

새해의 꿈을 연예 담아 주체106(2017)년 촬영

가슴이 뿌듯하다. 지난해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제재책동과 핵전략자산을 총발동한 군사적 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앞에는 시련의 먹장구름이 무겁게 뒤덮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굴하지 않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밟들어 더 힘차게 투쟁하였다. 우리에게는 무서울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신심이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하였다.

지난해에 조국은 미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을 떨치였다.

병진의 기치밑에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조국의 위력앞에 기겁한 미제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할 흉심밑에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를 련이어 조작해냈는가하면 늙다리불량배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의 《완전파괴》라는 미치광이폭언을 쳐쳐대고는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기장상태가 조성되었지만 조국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더 높이 비약하였다.

지난해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두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쾌승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련이어 이룩하였다.

조국땅 곳곳에 인민의 웃음 넘치는 행복의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온 나라에 사파향기가 차넘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 땅에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질수록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은 개꿈으로 되여버렸다.

정말 어딜 가나 로동당만세 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

없이 울려퍼지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산을 진감한 잊지 못할 주체106(2017)년이였다.

바로 그래서 자강력으로 보다 큰 기적과 전변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열매들이 더 많이 주렁질 새해의 첫 대문에 들어선 기쁨으로 하여 더욱 궁지로운 주체107(2018)년이다.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로동자 남동하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의 가증되는 제재속에서도 지난해 혁명거리가 일떠서 세계를 놀래웠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제국주의자들이 어찌구저찌구해도 우리는 우리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락원, 행복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것이며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것이다.》

그렇다.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걸어갈 앞길을 내다보며 조국인민들은 심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새해에도 조국은 더욱 흥하고 조국인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 더 큰 복이 차례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희망차고 즐겁고 유쾌한 주체107(2018)년의 새해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십
사진 조선중앙통신



땀방울의 무게에 의해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땀을 빚내이는 증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그 메달은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선수들은 매일파 같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있다.

그런 체육인들속에는 평양체육단 예술체조선수들도 있다.

이곳 예술체조선수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보천보화불상경기대회 기재별률운동에서 1위를

하고 예술체조집체운동에서 종합 1위를 한것을 비롯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함순애선수는 제9차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예술체조집체 운동 종합 2위와 제29차 세계 대학생경기대회 예술체조집체 률운동에서 3위를 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김진주선수와 리청미 선수들도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공개컵예술체조경기들에서 성과

를 거두었다.

얼마전 우리는 이곳 체육단의 예술체조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이 여러가지 기재들을 가지고 우아한 동작을 펼치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우리를 반겨맞은 책임감독 안봉희는 『감독들과 선수들의 열의가 정말 높습니다. 어제 이동훈련을 끝마치고 돌아와 좀 휴식하라고 하였는데도 모두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또 훈

목표를 높이 세우고



감독들은 새로운 훈련방법과 내용을 찾아내여 선수들의 나이상특성과 체질적조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그들은 선수들의 유연성과 중심잡기, 조약에 필요한 훈련 기재들을 새롭게 만들어 훈련에

련을 하고있습니다. 저 공화국기를 금메달로 빚내이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라고 말하며 벽에 걸려있는 공화국기발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공화국기발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말없는 높은 요구성이나 같았다.

조국의 영예를 빚내이는것이 체육인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라는...

책임감독의 말대로 이곳 감독들과 선수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새로운 동작들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하고있으며 룬과 공, 곤봉 등의 기재들을 다루는 예술체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구, 롱구 선수들은 물론 교예배우들의 훈련과정까지 연구하면서 선수들이 직접 새로운 동작들을 찾아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들의 경기과정을 수록한 특화물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우점과 결함들을 찾아내여 자기의 기술수준을 한계 단 높이도록 하고있다.

선수들 역시 감독들의 높은 요구에 분발해나서고있다. 그들은 경기에서 우승하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새로운 동작들을 찾아내고 숙련하기 위하여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있다.

우리와 만난 리청미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릴 때 그만큼 조국의 영예를 빚내이는 메달을 더 많이 안아올수 있습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도 땀으로 훈련복

을 적시며 열심히 훈련하고있는 예술체조선수들,

그들이 흘리는 한방울, 한방울의 땀방울무게는 비록 크지 않아도 그것들이 모이고모여 그리고 조국의 영예를 빚내이려는 그들의 마음과 노력에 의해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더 힘차게 휘날릴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십

유모아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물리선생: 어떤 물건이든지 더 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어느 학생이 실례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 할수 있느냐?

학생: 선생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기때문에 겨울에는 짧고 여름에는 길다고 봅니다.

* * *

마흔두발댕기가 휘날리는 밤색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창조한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통일아리랑》장을 마감하는 마흔두발상모춤이 더욱 그려하다. 흥겹고 기백넘치는 노래의 선률에 맞추어 배우들의 외상모돌리기, 양상모돌리기, 번개상모돌리기, 좌우치기 등 재치있고 다양한 기교들이 진행되는 속에 무대에 나선 배우가 마흔두발댕기를 순간적으로 휘뿌리고 그것을 재차 감아들고 무대우를 도는 순간에 여러개의 큰 원이 그려지고 장쾌하게 휘날리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황홀하다.

이 모습을 보면 관중들은 통일된 조국의 새 아침, 민족의 끝없는 환희를 한껏 느끼며 열광적인 환성을 터친다.

이런 높은 기교를 보여준 주인공은 국립민족예술단의 배우 최경주이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어난 그는 남달리 키가 크고 건장한 체력을 지닌것으로 하여 어릴 때부터 전문가들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무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전문교육을 거쳐 배우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상모춤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대상모춤을 담당수행하게 되었다. 상모춤은 일반적으로 한발, 두발, … 열두발 또는 스물두발이 최고이고 그 이상을 수행하는 배우는 매우 드물다. 하기에 무용조곡 《황금해의 내 나라》와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에 참가하였던 그도 첫선으로 스물두발댕기를 돌리는것으로부터 출연하였다. 사실 신인배우인 그에게 있어서 이것도 힘든 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작품의 흥취를 더욱 돋구고 작품의 수준을 더 올리고 싶었다.

그는 맡은 배역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스물두발에서 마흔두발에로, 거의 두배였다.

이악하고 꾸준한 노력속에 그는 끝내 목표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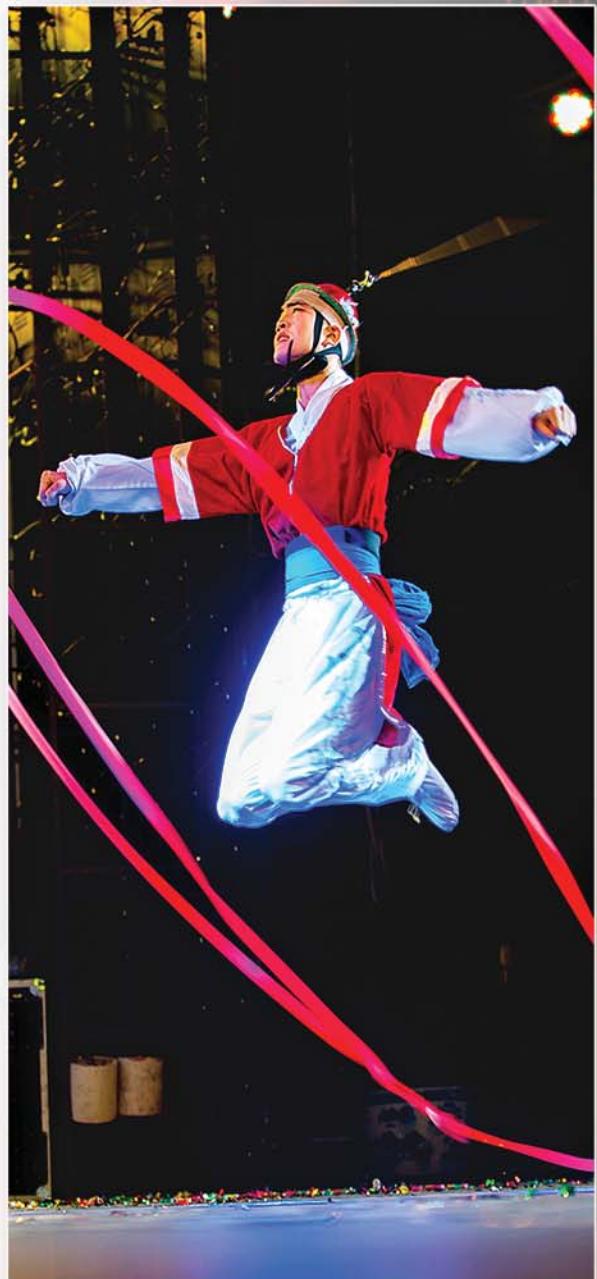
배우 최경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통일의 그날에 우리 민족이 터칠 그 환희를 생각해보면 마흔두발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댕기도 돌릴것만 같습니다.》

그는 실지로 통일의 그날이 오면 온 민족이 터쳐올리는 열광의 환호를 담아 최고의 댕기를 하늘높이 휘날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올해 25살인 그의 전도가 기대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애민쌍창 서일로 조가원
002심상 조윤순큰어머니 앞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오빠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주체107(2018)년을 맞으며 큰어머니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새해 첫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 여기에 있는 친척형제들도 모두 건강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건강이 지금은 어떠한지? 건강상 관계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하던 큰아버지가 지난해 제가 가져간 조국의 인삼술만은 식전에 한잔씩 들겠다고 하며 웃음짓던 그 모습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큰어머니가 년로한 몸이지만 90살이 넘은 큰아버지를 돌보느라 여러모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이제 큰어머니랑 한번 조국에 와보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고있으며 인민들도 더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을 이끄시기때문입니다.

바로 그 행복한 모습을 저의 가정의 평범한 생활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아들 유성이와 향옥이네 아들 위성이는 다른 아이들과 꼭같이 《소나무》표를 단 책가방에 《민들레》학습장을 가득 넣고 노래하며 학교로 가서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고있을뿐아니라 조국의 곳곳에 일떠선 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도 하고 또 훌륭히 꾸려진 학생소년궁전에서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재간도 배우고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집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라의 은덕을 스스럼없이 받아안으면서 그것을 그저 응당한것으로만 생각하였었는데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사는 큰어머니네 집에 갔다와서는 나라의 은덕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평범한 날에 받아안는 사랑보다 준엄한 시련의 날에 받아안는 사랑은 더 값지고 귀한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어머니와 오빠들도 다 아다실이 우리 조국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해 《제재》요 뭐요 하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김선옥(가운데)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더 잘살게 될겁니다.

그때 셋째오빠가 우리 조국은 미제와 당당히 맞서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 때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이 오죽 그리웠으면 제가 중국에 가서 보름도 안되였을 때인 4월 25일(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날 빼스를 타고 목단강시에서부터 단동시까지 나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조국땅을 바라보았겠습니까.

큰어머니, 올해에는 꼭 조국에 오십시오.

우리모두 함께 큰어머니가 그토록 가고싶어하던 고향땅 숙천에도 가보고 문수물놀이장이며 룽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에도 발이 닳도록 다녀봅시다.

새해에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며 펜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 54인민반
김선옥조카 올림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고장

지난해 가을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에 살고 있는 김인실동포로부터 자기 고향 평안북도 팍산군을 소개해 달라는 청을 받았다.

그 부탁을 안고 얼마전 팍산군을 찾았다.

우리를 마중나온 박정수라는 젊은 군일군은 최근 몇 해 사이에 팍산땅이 몰라보게 전변되였는데 그전에 왔던 사람들은 아마 팍산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 이였다.

박정수는 먼저 팍산에는 고구려시기에 쌓은 통한산성이 있는데 팍산이라는 이름도 성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것이라고 하면서 군에는 지금도 력사유적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팍산땅이 해발고가 낮은 바다 가별방지대로서 많은 간석지와 바둑판같이 규격 포전으로 토지정리된 판상별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팍산파수농장도 있는데 그것을 다 돌아보자면 시간이 펴그나 걸릴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팍산땅의 여러 농촌, 어촌들은 물론이고 읍지구에 건설된 미래원, 과학기술보급실, 은덕원, 팍산각, 체육관, 살림집들과 같은 건축물들만 보아도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팍산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독특한 건축미를 안고 서있는 미래원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팍산초급중학교 학생들이 한창 전자열람을 하고 있었다. 하루 수업을 마치고 매일과 같이 이곳에 와서 새 지식을 쌓아가며 래일의 고향땅을 더 아름답게 꽂피울 원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고향땅의 주인이 될 래일을 그려보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은 팍산소학교와 군 학생소년회관에서도 볼수 있었다.

개건된 군학생소년회관에서 우리와 만난 지도교원 원영춘은 여리장의 사진을 꺼내놓으며 자기 회관에서 소조생활을 한 학구선수들 가운데는 지난해 로씨야에서 진행된 원동대 학생체육축전 새 세대-2017에서 1위를 한 평양외국어대학의 김진숙을 비롯하여 여러 중앙체육단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와 헤여진 우리는 군체육관 관장 김정빈을 만나 체육관을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군일군들의 능숙한 지휘와 째인 조직사업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군내인민들이 체육관은 물론 운동장이며 물놀이장 등을 건설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체육관에 설치한 배구대와 봉구대를 비롯하여 10여개나 되는 육체훈련기재들은 련결농기계 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든것입니다.』 라며 관장은 군에서 앞채를 메고나가는 군연결농기계공장도 잘 소개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하여 우리는 모내는 기계와 이동식 탈곡기를 꽁꽁 생산해냄으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진 련결농기계공장은 물론 농업연구원 토양학연구소 팍산분소를 비롯한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들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인 제약공장과 종이공장, 식료공장에도 들려보았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남의 힘이 아니라 오직 자기 힘으로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은 락원의 땅으로 전변시키려는 팍산사람들의 높은 지향이 하나와 같다는것 이였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김인실동포의 조카 리병호가 일하는 량정사업소에도 들리기로 하고 걸음을 다우쳤다.

지배인 김일학의 안내를 받으며 기계소리 높은 생산현장과 과학기술보급실, 식당, 학숙, 양어장, 합각지붕을 얹은 우물터 등을 돌아보고 새로 건설하고 있는 5층짜리 건물앞에 이를 우리는 그곳에서 리병호를 만나게 되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사업소의 생산현장은 더욱 새롭게 변모되고 미꾸라지양식장과 버섯생산 기지까지 꾸려지게 됩니다. 중국에 사는 이모에게 이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기쁨까지 다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꼭 글에 담기로 약속하였다.

해가 저문 읍거리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더 아름답게 전변될 팍산군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팍산군인민병원에서



팍산군미래원



군학생소년회관에서 재능을 마음껏 꽂피운다.



군량정사업소에서



생의 목표를 위하여



우순선

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퍼타는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3.8닭공장 지배인 우순선 역시 그러하다. 그는 매일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공장안팎을 돌아보며 닭들의 알낳이정형이며 병아리상태, 닭우리의 온도와 습도 등에 이르기까지 실태를 료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하루일과의 첫시작으로 삼고있다.

그에 대해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그는 『지배인사업을 시작하며 생긴 버릇이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일에 파묻히는 그였지만 얼굴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보였고 활력에 넘쳐 있었다. 그가 70살을 넘기였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일욕심이였다.

공장에서는 닭알을 중단함이 없이 생산하면서도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진척시키고있었는데 그 앞장에는 그가 서있다.

그는 아래일꾼들에게 일군이라면 응당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사색하고 많이 실

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 부터가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제때에 받아들이는것은 그의 사업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가 지배인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공장은 완전히 변모되고 매해 닭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였고 보람이였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그다. 오늘날의 성과에 만족해한다면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잠간사이에 뒤떨어진 공장이 될수 있다는것을 그는 언제나 명심하고있다.

지금 공장이 내밀고있는 현대화도 바로 그려 한것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닭알생산을 더 많이 할 일념뿐이다.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그를 나라에서는 대학에도 보내주고 한개 공장의 지배인이라는 중임도 맡겨주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찌 열정으로 끓지 않으랴.

사실 이 공장에서 닭알을 많이 생산하여 황철의 로동계급과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주



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그는 그이의 유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관철할 하나의 마음안고 그렇게 일해나가고 있는것이다.

닭사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먹이보장대책을 앞세워나가는데서도 그려하였다.

그는 사료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신이 앞장에서 비경지를 찾아내고 땅을 일구어나갔다.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그는 쉴수가 없었다. 그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종업원들도 따라나섰다. 그렇게 찾아낸 수정보의 사료기지에서 알찬 열매들이 주렁저 종업원들이 그것으로 만족해할 때에도 그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단백먹이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새로 꾸리고 먹이첨가제를 선진적인것으로 개발도입하는것이였다. 그는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필요한 자재, 부속품들을 해결하면서 설비를 제작하였고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많았지만 그는 주저를 몰랐으며 끝내는 성공하고야말았다.

그의 이런 불같은 노력이 있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공장은 해마다 닭알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할수 있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공장으로 전국에 소문을 크게 내게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오늘까지도 그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위해 자기의 진정을 다 바친 그의 소중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믿음에는 믿음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일을 놓는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의 목표입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혁사인물

애국문화운동가 리기

리기(1846년-1909년)는 우리 나라 애국문화운동의 대표자이다.

그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자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애국문화운동에 나섰다. 1906년 3월 장지연(1864년-1921년)과 함께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애국문화운동을 벌리였다.

1907년에 《을사5적》암살사건에 관계한 리유로 전라남도의 진도에서 류형살이를 하였으며 류형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애국문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정치사상이다.

그는 봉건유교사상이 사대주의를 부식시켜 사람들의 애국심을 마비시키였으며 한문을 송상하고 국문을 천시하게 하여 교육문화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특히는 신분적불평등과 문벌의 차이를 조장시키고 당파싸움을 발생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렐강들의 침략에 대항할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봉건전제제도를 부르죠아립헌군주제도로 교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문벌제도와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부르죠아적자유민권을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봉건적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빈부의 차이를 없애며 봉건적유교교육을 없애고 부르죠아적 《신교육》을 발전시켜 나라의 부흥발전을 도모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와 짜리로씨야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대하여서도 호소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인민들을 민족의식과 근대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반봉건반침략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저서로는 《해학유서》가 있다.

* * *

아름다운 나라

나는 이번에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60평생 이제야 고국에 와본 것이 참으로 후회된다.

나는 평양에 오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친구에게서 《이제 가보면 고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조선속담에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고국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내가 본 평양의 모습은 정말 그 어느것이나 다 아름답고 깨끗하며 훌륭하였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살림집들

과 공공건물들은 현대적이였으

며 시내의 곳곳에 있는 공원들과 유희장들, 평양국제비행장과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김정숙평양체육공장 등 건축물들과 공장들은 친구의 말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아니, 고국의 현실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나는 고국의 모든 것에 반했다.

고국에 대한 나의 첫인상에 대해 말할 때 《아름답다》는 수식사외에 더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

고국의 눈부신 현실은 인민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그것을 발휘하여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고국인민들이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더 아름다운 래일을 가꿔 가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나라, 고국은 언제나 나의 심장속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윤 클로라



잊지 못할 칠보산관광의 나날

나는 백두산이며 묘향산, 금강산, 구월산에 자주 가보았지만 이번처럼 칠보산관광의 길에 올라보기는 처음이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의 이름도 진귀한 일곱 가지 보물에 비기여 그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대표단 성원들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끝짜리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해안절벽과 기묘한 섬바위들, 사철 샘솟는 온천들로 하여 절경을 이루는 칠보산의 내칠보, 외칠보, 해

칠보를 즐겁게 돌아보았다.

이번 칠보산관광이 어느 관광과 구별되게 특별히 인상깊은 것은 해칠보민박숙소에서 조국인민들과 한집안식구처럼 식사도 함께 하고 밤깊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민속놀이도 진행한 것이다.

따끈따끈한 햇감자를 홀홀 불면서 맑고 맑은 조선동해의 바다물로 앗은 두부까지 초간장에 찍어 먹던 일이 참으로 인상깊었다.

나처럼 이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인민들이 평소에 범상하게 대해오는 풀 한포기, 나무한그루, 민족음식 하나도 얼마나 소중하고 류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진정 칠보산관광의 나날은 애국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불태워준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김금자

반전반미, 통일운동의 앞장에서

지난해 우리 민족의 분렬을 더욱 조장시키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우심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일본, 중국, 로씨야,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있는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신년사를 지지하여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파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력사적인 10. 4선언 발표 10돐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가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력사적인 10. 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

소하였다.

10. 4선언 발표 10돐을 계기로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가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자!》라는 호소문과 글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지역위원회는 글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동맹》보다도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공조를 중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10. 4선언이 제시한 길을 따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루려 나가는 것이 초불민심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전반미의 함성도 여느 때 없이 높았다. 민족의 머리우에 기어이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해외동포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들은 성명, 담화, 집회를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 피뢰호전왕들의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전쟁연습들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정면도전으로,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짓밟고 조국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라인하며 준렬히 단죄 규탄하였다.

재미동포들도 워싱턴, 뉴욕, 로스엔젤스에서 미국평화운동단체들과 련대하여 일제히 미

국의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였다. 그들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트럼프정부는 북침전쟁도 발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의 《완전파괴》라는 망발을 쳐쳐댄 것과 관련하여 재일조선청년학생항의단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의 전대미문의 미치광이 망발을 단죄 규탄한다!》, 《미국은 제재와 핵위협, 침략 전쟁책동을 그만두라!》라고 쓴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미국의 반공화국적 대시정책과 핵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치며 투쟁열기를 고조시켰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산하지구협회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일군들은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불망나니 트럼프가 반인륜적인 망발을 당장 철회하고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밖에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재도이월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를 비롯한 여러 해외동포조직들도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왕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본사기자 전룡진

《조선은 전세계의 모범국이며 스승이다》

지난해 한 재미동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전세계의 모범국이며 스승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것은 비겁성이라고 하면서 외세주구들 특히 일본이 그렇다고 밝혔다.

아베가 미국에 개처럼 꼬리 치면서도 남조선에는 개같이 으르렁거린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미국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힘없는자들을 협

조선속도(굼뜸)

- 늦은 밤 먹고 과장 간다
때를 놓치고 뒤늦게 행동을 시작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망건 쓰자 과장된다
장에 가려고 망건을 쓰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만 장이 파하고 말았다는 뜻으로 너무 오래 꾸물대다가 불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웃어 이르는 말.

- 소 잃고 외양간 고진다
일이 이미 다 뒤틀어진 뒤에야 때늦게 행동함을 비겨 이르는 말.
참고: 도적놈 보고 사립문 고친다

- 아비 죽은지 나흘후에 약을 구한다
행동이 매우 느리고 굼뜨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

- 여드레 팔십리걸음
매우 굽든 걸음걸이나 동작을 비겨 이르는 말.
참고: 여드레 팔십리

* * *

상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과 같이 도덕적원칙이 없이 오직 힘의 원칙만 내세우는것이야말로 깡패이며 깡패는 비겁하다고 조소하였다.

외세앞에 굽신거리는 반면에 자기 민족을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남조선주구들은 그야말로 인간이하의 속물들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리성적이며 용감한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와

약소국에 우호적이며 친절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그러한 사상은 위대한 사상이다.

바로 조선이 그렇다.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돈의 힘으로 지배할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사상강국 조선이다.

조선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조선은 전세계의 모범국이며 스승이다.

* * *

상식 중세 말기 여러가지 천의 명산지

중세말에 우리 나라에서 공예작물제작과 직조수공업이 발전하여 남쪽지방에서는 주로 무명, 북쪽지방에서는 베와 명주가 많이 생산되었다. 이것을 『남면북포(북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명주, 함경도와 강원도에는 베, 충청도에는 모시,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무명의 명산지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정형을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평안도, 황해도의 명주가운데서는 성천의 분주, 넝변의 합사주, 해주의 자주(붉은명주)가 유명하였다. 그밖에도 평안도의 안주, 개천, 덕천 등지는 얇고 성글며 작은 구멍이 있어서 늘한 느낌을 주는 비단천인 항라의 명산지였다. 그리고 황해도 수안의 명주실도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함경도의 회령, 경흥 등 6진지방과 길주, 명천 등지에서는 베(마포)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당시 함경도지방의 베를 『북포』, 『동포』 또는 『바리내포』라고 하였다. 바리내포

* * *

변함없는 애국애족의 한길로

동포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 주체107(2018)년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해의 첫 인사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조국과 민족을 아끼고 위하는 깨끗한 마음을 안고 통일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쳐오는 동포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동포여러분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뜻을 받아들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역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 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로씨야,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 의지를 안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습니다.

로씨야와 미국, 중국, 일본, 카나다, 도이췰란드 그리고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의 조선인동포단체 대표들은 남조선인민들과 전체 해외동포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례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동포여러분의 그 장한 모습들을 그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



느 지역에 살고있어도 조선사람이라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같다는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깊이 새기고 과감한 공격전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제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제재결의》라는것을 통하여 조작해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최후발악적으로 나오고있지만 그 어떤 광풍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멈춰세우지 못할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 험난해도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고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지켜주고계시기에 미제의 종국적멸망은 시간문제이며 조국통일의 앞길은 락관적입니다.

올해에도 해외동포여러분은 순간의 침체와 답보,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살광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줄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포여러분이 서로의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통일애국사업을 더 즐기차게 벌려나가면서 새해주체107(2018)년에도 맡은 사업에서의 성과와 건강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쳐장 오성호

지워지지 않는 모습

우리가 천재련동포를 조국에 서 만난 것은 지난해 9월이였다. 천재련동포는 일흔이 넘었지만 나이보다 짧아보였다. 나날이 짧아진다는 우리의 말에 천재련동포는 다 죽었던 몸을 조국에서 살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짧어졌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 106(2017)년 1월 17일 동포는 뜻밖에도 심한 머리아픔으로 하여 평양친선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그때 그의 생명지표는 위험수치에 있었다.

병원에서는 천재련동포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한데 기초하여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시급히 지혈대책을 세우고 의사협의회를 열었다. 그때부터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매일 24시간 그의 결을 떠나지 않으며 동포의 몸으로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고가약들이 무상으로 흘러들었다.

5일만에 겨우 의식을 차렸을 때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달려와 머리가 아프지 않는가고 물어보며 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다 보았다고, 큰일을 한 할머니인데 이제부터 같이 치료를 하자고, 꼭 완쾌될 수 있다며 그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천재련동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나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연길시지부장으로 사업하던 그는 다른 지부들보다 인원이 많은 연길시지부를 화목하고 단결력이 강한 지부로 꾸리기 위해 언제나 마음썼다.

로년, 중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로인들에게는 조국에 갔다



들어 맡겨진 일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렸다.

그는 그때 찍은 기념사진을 늘 가슴에 품고 그이께 결의다진대로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하였다.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성의껏 지성품을 마련하였고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제집의 쌀독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며 가산을 아끼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로 직무를 옮겼을 때에는 동포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도록 로장답게 그들을 이끌었으며 동포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봇을 쥐고 『백두·한나』와 『통일문학』 잡지들에 많은 글과 시도 써올렸다.

그리고 재일동포작가인 오홍심을 비롯한 동포작가들을 만나 통일을 위한 글을 더 많이 쓰기 위해 토론도 하고 경험도 교환하였다.

정말 잠간 만나도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였다.

조국의 따뜻한 사랑, 무상치료제의 혜택 속에 그는 60여일만에 병원문을 나서게 되었다.

퇴원하는 날 동포는 중국에 있었다면 엄청난 치료비에 죽을 목숨인데 어머니조국이 있어 두번째 생을 받아안았다고, 조국을 위해 한몸을 초불처럼 태우겠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동포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끊씹어 하였다.

그리하던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 동포들곁에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는 동포조직과 동포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고려의 민족음악

조선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훌륭한 민족음악들 가운데는 우리 나라 중세음악사에서 10세기 초부터 14세기 말의 음악을 포함하고 있는 고려시기의 음악도 있다.

고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첫 통일국가가 세워짐으로써 단일민족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협연적 및 문화적 공통성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그에 따라 민족음악의 내용과 형식도 보다 폭넓고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먼저 고려시기에는 인민가요들이 많이 창작보급되었으며 여기서 기본을 이룬 것은 민요였다.

고려시기에는 당시 인민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로동민요들이 많이 창작보급되었다.

이 시기에 창작보급된 대표적인 로동민요로는 어부들의 물고기잡이와 관련된 『어부가』, 『도가』, 『어부의 노래』, 농부들의 농사일과 관련된 『모내기노래』, 토목로동과 결부된 『금강성』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경개에 대한 애착, 남녀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노래한 것과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한 것 등 다양한 주제내용의 서정민요들이 수많이 창작보급되었다.

조국산천을 노래한 대표적인 서정민요는 평양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노래한 『서경』, 『대동강』과 고려시기 판동8경의 하나인 경포대가 있는 강릉지방의 아름다운 밤경치를 노래한 『한송정』 등이다.

고려시기의 서정민요 가운데는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생활을 반영한 것, 사랑하는 남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너인의 애절한 생활감정을 반영한 것,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반영한 것 등도 있다.

이밖에도 『동동』, 『정읍』 등 선행시기의 노래들이 당대의 현실과 생활정서에 맞게 다듬어진 민요들도 있다.

고려시기에는 당대의 사회현실과 봉건통치체들의 부패한 생활리듬을 풍자조소한 풍요, 참요와 같은 사회정치민요들이 많이 창작보급되었다.

고려시기에 창작보급된 대표적인 풍요, 참요로서는 『해종일 밭갈아도』, 『보현원요』, 『목책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시기에는 기악음악도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오던 민족악기들이 발해, 후기신라시기 이후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웃나라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그 종수가 급격히 늘어나 무려 50여종에 달하였다.

또한 궁중음악분야에서 앞선 시기에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적인 관현악단이 조직운영되고 전통적인 민족악기들이 민간에 광범히 보급되었다.

고려에서 12세기초에 조직운영된 등가악단과 헌가악단의 규모와 조직구성을 보면 등가악단은 악공 26명과 가공(가수) 4명에 악정 1명, 협률랑(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33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헌가악단은 악공 179명, 가공 12명, 무공(무용수) 96명에 협률랑 1명을 합하여 총 28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려 후반기 민간에서는 직업적인 음악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피리, 저대, 통소, 가야금, 거문고, 장고와 같은 전통적인 민족악기들이 광범히 보급되었으며 많은 악기명수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저대명수로는 문탁, 가야금명수로는 대어향과 옥기향, 거문고명수로 아양, 향비파명수로 김선, 장고명수로 설원을 들 수 있다.

고려 후반기에는 특히 저대가 민간에 널리 퍼지었으며 피리, 통소와 같은 민족관악기들과 장고와 같은 민족타악기들이 널리 퍼져 리용되었다.

고려시기에는 전통적인 국음악도 더욱 발전하였다.

고려시기 국음악이 발전하였다는 것은 민속적인 종합예술형식인 『구나행』, 『산대잡극』이 성행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시기에 이르러 인민가요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던 민요가 각이한 로동대상에 따라 불리워진 로동민요, 다양한 주제내용의 서정민요, 불합리한 현실생활을 반영한 사회정치민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되어 다채롭게 발전하였으며 민간에서 활동한 직업적인 예술인들에 의하여 기악음악과 국음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고려의 음악은 국토와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유리한 사회력사적 환경속에서 창조되고 발전한 음악인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중세민족음악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조국의 천연기념물 (12)

평안북도의 천연기념물에는 또한 정주은행나무와 좌리전나무, 묘향산소나무, 학당옻나무군락 등이 있습니다.

정주은행나무는 평안북도 정주시에 있습니다. 나무는 두그루의 암나무가 한데 붙어서 특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나무가 없으나 매해 열매가 달리는것으로 하여 꽃가루이동거리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0m, 밀둥둘레는 8m이고 가슴높이둘레는 8. 3m이며 밀둥직경은 2. 7m, 나무갓의 직경은 동서 24m, 남북 20m입니다.

정주은행나무는 두그루를 한자리에 가지런히 심었던것이 점차 자라면서 하나의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두 나무는 밀둥에서 5m높이까지 줄기가 합쳐져 자라다가 가지를 사방으로 쳤으며 굵기는 남쪽에 있는 나무가 북쪽에 있는 나무보다 더 굵고 열매의 크기도 큅니다. 나무는 현재 왕성하게 자라고있습니다.

좌리전나무는 평안북도 삿주군 좌리에 있는 천

연기념물입니다.

리소재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연골에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10m 떨어진 곳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쪽 산비탈면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좌리전나무는 크기와 생김새로 보아 연구적가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41. 5m, 밀둥둘레는 6. 6m, 가슴높이둘레는 5. 6m입니다. 높이 2m에서 가지를 고르롭게 치고있습니다.

묘향산소나무는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있습니다. 묘향산 상원동의 상원암뜨락앞에 있으며 묘향천에서 약 3km 떨어져있습니다.

묘향산소나무는 크며 오래 자란 나무일뿐 아니라 줄기껍질이 전형적인 붉은색으로 되여있어 상원암의 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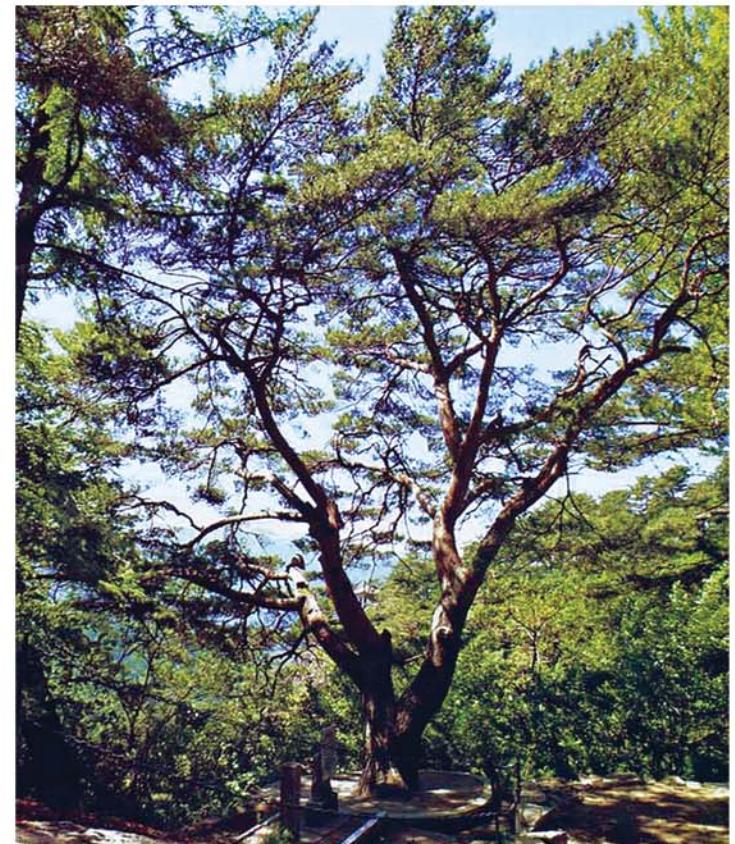
나무의 높이는 15m, 밀둥둘레는 3. 5m이고 가슴높이둘레가 2. 8m, 밀둥직경이 1. 2m입니다. 그리고 가슴높이직경은 0. 9m이고 나무갓

직경이 약 10m입니다. 주변에는 은행나무, 전나무 등이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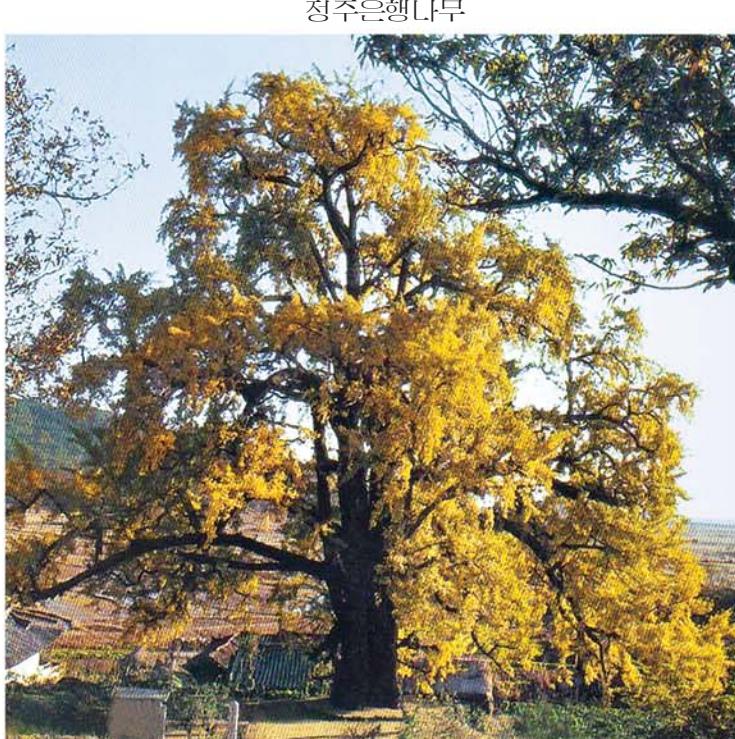
학당옻나무군락은 평안북도 태천군 학당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옻나무군락은 우리나라에서 옻나무의 지리적분포와 그의 생태적특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7(1958)년 8월 태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옻나무를 잘 보호관리할대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학당리에는 집둘레와 밭최뚝, 산기슭들에 많은 옻나무들이 자라고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있는 이곳 옻나무군락에는 야산의 중턱과 기슭에 수백년 자란 옻나무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있습니다. 옻나무에서 나오는 옻진은 먼 옛날부터 좋은 칠감원료로 이름이 났습니다. 현재 태천지방에서는 옻진을 채취하여 고급칠감원료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묘향산소나무



정주은행나무



좌리전나무



학당옻나무군락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 천주사 -

천주사는 평안북도 넝변군에 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절인 천주사는 관서8경의 하나로 아름다운 경치와 유난히 높게 피는 진달래로 유명한 약산동대의 동남쪽 산허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천주사는 1684년에 처음 세우고 그후에 여러차례 개건되었습니다. 철옹성축성비에는 1684년에 옛성을 고쳐쌓으면서 천주사를 세웠는데 그 건물이 80여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천주사에는 중심건물인 보광전과 그 맞은편의 천주루, 그밖에 안마당 땅쪽에 몇채의 부속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약산동대를 찾으시여 천주사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적들에 의하여 훌륭한 문화유물들이 많

이 파괴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있는 고적들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습니다.

천주사는 산비탈면에 지으면서 필요한 축대들을 여러겹 쌓았습니다.

보광전 정면의 문짝은 기하학적무늬의 국화무늬를 뚫음새김하여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안의 천정은 소란반자로 하고 건물에는 멋있는 금당을 입혀 주위의 풍경과 잘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천주루는 특색있게 꾸민 다락집입니다. 가운데다락을 중심으로 그 땅쪽으로 뻗은 복도끝에 앞으로 내민 다락이 날개마냥 연결되였는데 동쪽의것이 향일헌, 서쪽의것이 망월대입니다. 그 땅쪽다락뒤로 부속건물들이

뻗었는데 그것은 마치도 옛 관청건물인듯 한 느낌을 줍니다.

이 절간에는 단청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배놀이하는 장면, 쉬는 장면, 전투하는 장면, 산놀이하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장식무늬(천주루의 대들보무늬) 등과 함께 인민들을 착취하여 호의호식하면서 방탕하게 살던 중들과 량반들의 생활장면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 절간은 한때 청천강이 북의 승군지휘처가 있던 곳으로서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절간부근에서 무기고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천주사는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서 조선건축사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본사기자

민족의 향기

제손으로 평양온반을 만들어

평양의 려명거리에는 평양온반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온반집이 있습니다.

온반은 예로부터 평양지방의 4대음식의 하나로, 민족음식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평양온반의 유래부터 보기로 합시다.

먼 옛날 평양관가에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하는데 없는 불쌍한 젊은이들인 형달이라는 총각파 의경이라는 처녀가 심부름군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추운 겨울날 형달은 뜻밖에도 억울한 루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달을 잊지 못해 눈물속에 살던 의경은 어느날 부엌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남몰래 흰쌀밥 한그릇과 지짐 몇작 준것을 먹지 않고 거기에 설설 끓는 국물을 부은 다음 옥에 갇힌 형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에서 풀려나온 형달이가 의경이와 결혼하는 날 그들은 그때의 음식을 만들어 마을사람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평양지방사람들은 결혼식날이면 부부가 착한 마음씨와 참된 의리를 지니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온반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옛이야기를 되새겨보니 평양온반을 맛보고 싶은 총동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길로 려명거리온반집을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려명거리온반집 지배인 박연옥은 주체89(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일행이 평양온반을 맛보고 감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시의 좋은 위치에 평양온반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을 훌륭히 세우도록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 제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뜨끈한 평양온반을 맛있게 든 후 우리가 박연옥에게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동포들에게 소개하고싶다고 하자 그는 손님봉사로 바쁜 시간이였지만 기꺼



이 응해주었습니다.

《평양온반 한그릇분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선 흰쌀 150g, 닭고기 175g, 돼지고기 75g, 버섯 150g, 록두 20g, 닭알 1알, 기름 10g 그리고 파와 마늘, 고추가루, 후추가루, 참깨를 적당히 준비합니다.

다음 흰쌀을 물에 불구었다가 밥을 되직하게 짓습니다. 버섯은 볶고 닭알로는 실닭알을 만듭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푹 삶아 닭고기는 찢고 돼지고기는 보기 좋게 썰어놓습니다. 록두는 타개여 껌질을 50%정도 가려낸 후 망에 갈아 돼지비계 4g을 두고 동그랗게 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온반의 맛을 살리자면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7:3의 비율로 쓰며 록두지짐은 농촌집들에서처럼 거밋거밋하게 지져야 더 구수하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다음 큰 국그릇에 밥을 골싹하게 담고 그우에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량전에 보기 좋게 놓고 가운데에 버섯볶음을, 그우에 갖은 양념을 한숟가락 놓고 또 그우에 록두지짐을 얹어놓습니다. 록두지짐우에 실닭알로 고명한 후 뜨끈한 닭고기국물을 밥이 잡기도록 끗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평양온반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

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평양온반의 맛을 살리자면 닭고기국물도 잘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수긍하면서 그는 닭고기가 한창 끓기 시작할 때 거품을 걷어낸 후 30분정도 더 끓이면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걷어내고 서서히 끓여야 국물이 맑으면서도 달다는것이였습니다.

동포여러분, 민족의 향기가 구수하게 풍겨나는 평양온반을 가정들에서도 꼭 만들어 맛보십시오.

그리고 조국에 오시면 려명거리온반집에도 꼭 들려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불치병인 암에 도전한 약

불치의 병으로 공인된 암성질병에 도전하는 금이온항암주사약,

면역기능과 생존률을 높이는 이 약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에 따라 높아가고있다.

『대다수 암치료약들은 암세포뿐아니라 다른 정상세포에도 독작용을 미치다보니 머리아픔, 소화장애, 계우기, 점막출혈 등을 일으키거나 백혈구수를 떨구었는데 금이온항암주사약은 독성과 부작용이 전혀 없을뿐만아니라 항암효과가 참으로 크다.』(남포시 천리마구역 윤복실, 61살)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사 박창현, 실장들인 김영남, 리준혁은 10여년간에 걸친 연구결과에 금이온이 몸안에서 암세포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그 발생과 증식, 침윤, 전이를 막는 독특한 암리효과를 나타낸다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순도금을 용융, 추출, 분리하고 생물학적활성이 큰 용매제에 분산이온화시켜 이 약을 개발하였다.

암세포에 대하여 높은 선택성과 항암작용을 나타낼뿐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계통을 활

성화시켜 백혈구, 림파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면역세포들의 기능과 유기체의 방어기능을 높여주는 이 약은 간암 그리고 유선암수술후 재발, 전이예방 및 치료에 쓴다.

주체105(2016)년 7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그 다음해 7월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는 금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엄향심



사화

송씨의 아들교양

다. 며느리와 손자들은 내가 말을 것이다.》

하여 임현은 한성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다시 기별하고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송씨에게 간청해서 겨우 동생만 림시로 어머니옆에 남겨두었다.

조정에서는 임현의 애국심을 평가하고 강원도 도사로 임명하였다.

도사로 부임하여 원주에 도착한 임현은 흘어진 군사들을 모아들이여 방어 할 대책을 세우고 한편으로 백성들이 농사일에 안착되게 하였다. 그리고 왜적이 원주부근에 침입할 때마다 민첩하게 손을 쓰고 기묘하게 계책을 써서 300여명의 왜적을 쓸어눕히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크게 인정하여 함경도의 관리로 보내였다가 다시 전라도 남원부사로 전임시키였다. 그는 함경도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에 송씨에게 들리여 문안을 드리고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도 전부 남원으로 데려왔다.

임현의 형제도 피난을 가기 위해 의논을 하고있는데 송씨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 왜적이 들어왔을 때 사내대장부가 왜적을 막아싸우지 않고 피난을 간다는것이 무슨 소리냐?』

더구나 이미 벼슬까지 하던 사람이 나라의 위급한 정세를 모른체 할수 있느냐. 임현이는 당장 한성으로 떠나거라. 형을 도와서 임발이도 함께 가거라. 늙었을망정 여기는 어미가 있

송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은 네가 지켜야 할 땅이 아니며 이 백성이 네가 보호해야 할 백성이 아니냐?』

너는 네 아우를 데리고 살아 있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죽어도 백성들과 함께 죽어야 한다.』

송씨의 준절한 말에 임현은 왜적을 맞받아 나갔다. 그는 직접 활을 들고나서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왜적을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화살이 떨어지자 왜적들이 임현에게 덤벼들며 항복하라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임현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였다.

『개, 돼지만도 못한 섬오랑캐에게 항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자 왜적들은 칼과 창으로 임현의 가슴을 여러곳이나 찔렀다. 임현의 순절을 지켜본 많은 군사들도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임현이 순절한 소식이 송씨가 살고있는 동리에까지 전해져 동네사람들모두가 와서 송씨를 위문하였다.

그리는 마을사람들에게 송씨는 말하였다.

『내 아들은 나라를 위해 죽었고 또 이 어미가 바라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한번 죽어서 효자충신으로 된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누구나 남원부사 임현의 공로를 칭송하게 된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어머니 송씨가 자식을 교육교양하는데서 발휘한 숭고하고 훌륭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 *

민족자주에 조국통일이 있다

새해 주제107(2018)년이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한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하루빨리 외세를 몰아내고 삼천리강토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열망과 의지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는 역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 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였다.

돌이켜보면 7. 4공동성명과 10. 4선언발표 이후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원칙에 기초하여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그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발표로 민족의 앞길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지난해에도 겨레는 내외반통일전쟁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가 염중히 위협을 받고 통일위업수행에서 난관이 조성되였지만 비판하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겨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갔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반미의 불길도 세차게 지펴올렸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발전을 절절히 념원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하여 박근혜《정권》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초불혁명》에 의해 태여났다는 현《정부》는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결교들면서 미국과 앙합하여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살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하시켰다.

사태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겨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파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동족과 손잡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자면 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자주는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답보이며 기본원칙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침예할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외세의 간섭과 전횡이 우심 할수록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손잡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조국통일실천이 보여주는 절대적진리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성해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것이 민족분렬의 장구한 역사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현 정부는 이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집권 첫 시기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놓았다. 한때는 미국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 남조선집권자가 큰 나라들에 무턱대고 굽신거리며 『특사외교』니, 『전화외교』니 하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는가 하면 지금도 『한미동맹강화』를 매일같이 떠들고있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통일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그 어떤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의 손에 확고히 쥐여져있다. 남조선당국이 입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운운하면서도 실지로는 친미사대의 구태와 굴종의 사슬에 얹매인다면 언제가야 북남관계도 통일문제도 절대로 풀어나갈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자주냐, 외세추종이냐, 우리 민족끼리냐, 『한미동맹』이냐 하는 중대기로에서 옳바른 결심을 내려야 하며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의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잊고 민족적단합을 이루하기 위한 대업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절대시하면서 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내부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충돌과 전쟁을 면할수 없다.

뭉치면 강성할수 있지만 갈라지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응당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부터 털어버려야 하며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려정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보수《정권》시기의 동족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재와 압박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떠들고있다. 그리고 동족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에 대해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며 미국과 합세하여 제재와 압박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것은 현《정권》역시 동족대결로 나가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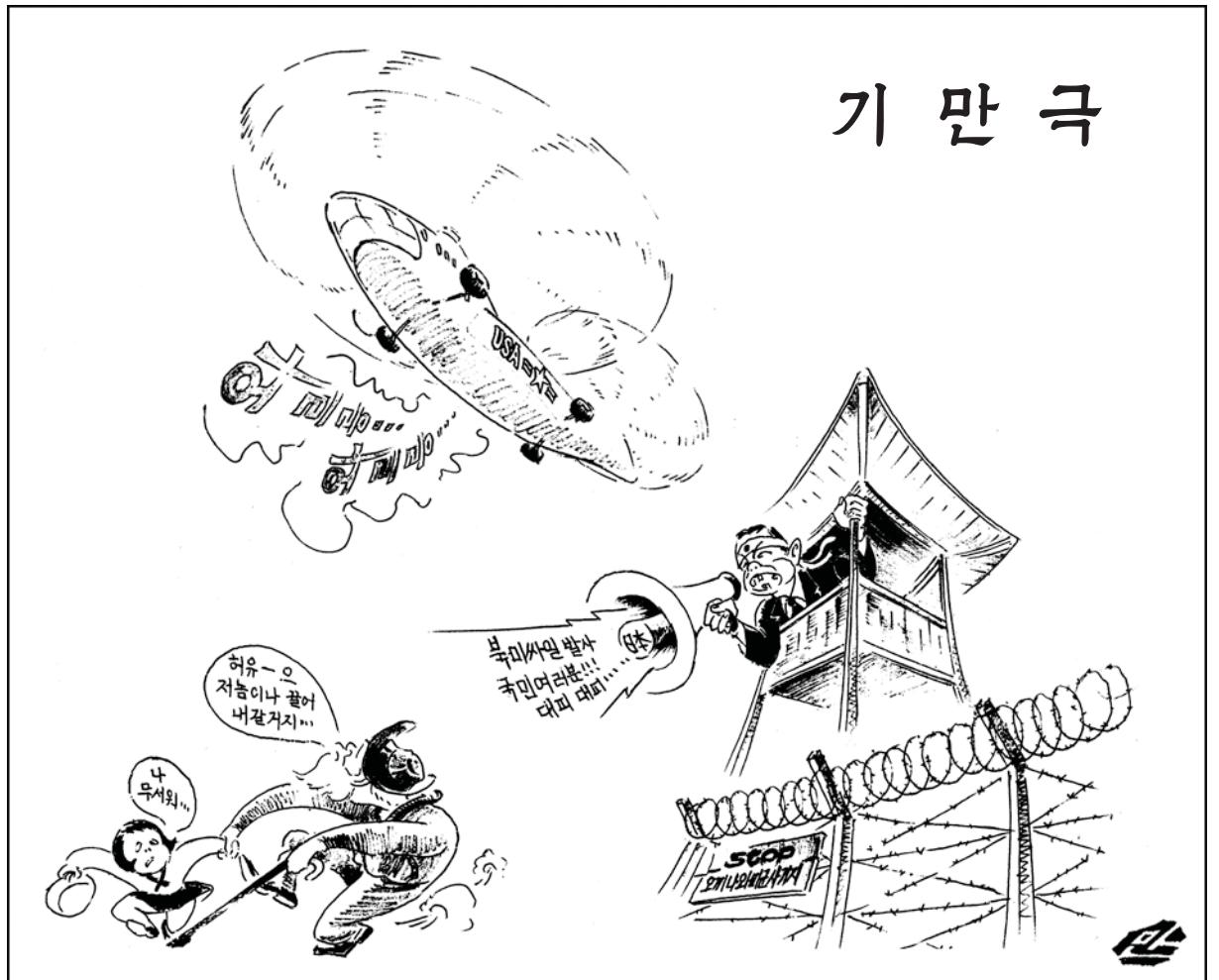
동족대결은 우리 공화국을 『완전파괴』하겠다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깡패기질적인 망언그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통채로 받아문 매국배족적처사이며 제재와 압박은 반공화국적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북과 남이 상대방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손잡고나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때 민족의 출로가 열릴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갈 때 민족의 출로, 조국통일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새해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기 만 극



달녀와 사슴

느티나무밑에 한 나어린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점박이사슴이 그의 곁으로 다가 왔다.

『얘야, 넌 누군데 왜 그리 슬퍼우니?』

소녀는 그 소리에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얘야, 놀라지 말아. 난 사슴이란다.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하려마. 내가 널 도와줄지 아니.』

소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듯 다시 자리에 맥 없이 앉으며 『사슴아, 난… 난 앞을 못 봐. 혹 혹…』 하고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 눈을 상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소녀의 이름은 달녀라고 하였다. 그는 욕심사 납기로 소문난 왕도투지주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다. 탐욕스럽기 이를데 없는 왕도투는 농민들의 땀을 짜내며 극악스레 재물을 모았다.

그런데 왕도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지만 모두 헛일이였다.

『어이쿠, 내 신세야. 빚문서와 토지문서를 보지 못하구서야 어떻게 재물을 모은단 말인고. …』

어느날 왕도투는 향솔산에 가면 신기한 옹달샘이 있는데 그 샘만 찾으면 소경도 눈을 뜯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여 왕도투는 달녀가 그 옹달샘을 찾아내게 하였다. 며칠후 빈손으로 돌아온 달녀를 보자 도투는 그에게 달려들어 뭇매질을 하였다. 채찍에 얻어맞은 달녀의 두눈은 피멍이 졌고 동자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앞을 못보게 된 달녀가 더는 쓸모가 없이 되자 왕도투는 집에서 쫓아냈다. …

사슴은 달녀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하고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네 눈을 다시 보도록 해줄게.』

사슴은 눈먼 달녀를 태우고 옥류봉기슭의 키 낮은 향나무밑의 옹달샘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샘물을 자기 몸에 묻혀 상처입은 달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피멍이 진 온몸도 깨끗이 씻어주었으며 눈을 샘물로 씻도록 해주었다.

『보인다! 사슴아, 보이누나!』

달녀는 너무 좋아 어린애처럼 사슴을 불들고 통통 뛰였다.

달녀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알게 된 도투는 그에게 샘이 있는 곳을 대라고 들이댔다. 달녀에게서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되자 도투는 어느날 그에게 장에 갔다오라고 하면서 세면물까지 떠다가 주었다. 아무 생각없이 그 물에 세면을 하던 달녀는 또다시 눈이 멀게 되었다. 도투가 물에 독약을 쳤던것이였다.

손더듬으로 느티나무밑에 가닿은 달녀는 터지는 울음을 감씹으며 사슴을 찾았다. 향솔산의 사슴은 자기를 찾는 달녀의 귀익은 소리를 알아듣고 나는듯이 달려왔다. 달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슴은 너머도 분해 이를 갈며 몸을 떨었다.

달녀를 등에 태운 사슴은 옥류봉의 옹달샘으로 향하였다.

숨어서 그들이 하는 모양을 지켜보던 도투는 옹달샘으로 달려와 계걸스레 샘물을 마구 먹었다. 뿐영던 앞이 환해지자 도투는 욕심에 미쳐 샘물가에 넓적 엎드려 계속 마셔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에서 번쩍하고 번개불이 일더니 『툭!』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더니 도투의 눈앞이 새까매졌다.

밝아질대로 밝아진 눈알이 이젠 더 밝아질수가 없으니 그만 툭 터지고만것이였다.

『어이쿠! 이젠 망했구나, 망했어!』

달녀는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죽는 소리를 지르는 도투에게 돌벼락을 안겼다. 사슴도 드센 뿔로 도투를 받아넘겼다. 산아래로 데굴데굴 굴러내린 도투는 아찔한 벼랑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후 달녀는 왕도투가 없어진 마을에서 머슴신세를 면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잘살았다고 한다.

* * *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아야 한다

공화국의 련속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에 질겁한 남조선피뢰들이 시대착오적인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 피뢰들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도발』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대응 조치 강구』와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에 대해 력설하였으며 미일상전들에게 『대북제재와 압박』을 구걸해나섰다.

그런가 하면 유엔무대에 나타난 피뢰집권자는 트럼프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망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느니, 그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느니 하며 상전의 정신병적인 광태가 조선민족에게 어떤 몸서리치는 참화를 몰아오겠는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의 사태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트럼프 패거리들의 위험한 망동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피뢰들은 전쟁미치광이들의 편에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피뢰들의 이런 비굴한 대미추종행위는 결국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부채질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후파밖에 빚어 낼것이 없다.

남조선피뢰패당이 친미사대의식이 풀수에 찬 매국노들이라는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동족의 『절멸』을 쥐쳐댄 트럼프의 미친 폭언을 두둔하다 못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조

치들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망동은 온 겨례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현시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고 있는 정치외교적 압박과 야만적인 경제제재, 군사적 위협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이다.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공화국의 『절멸』 나발을 불어댄 것은 전쟁도발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 포고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전쟁피수의 정신병적인 광태가 조선민족에게 어떤 몸서리치는 참화를 몰아오겠는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의 사태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트럼프 패거리들의 위험한 망동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피뢰들은 전쟁미치광이들의 편에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피뢰들의 이런 비굴한 대미추종행위는 결국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부채질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후파밖에 빚어 낼것이 없다.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무작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동족을 혈뜯는 남조선피뢰들이 그 무슨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떠벌이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뢰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공화국에 도전해나서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공화국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여 겨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피뢰들은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쓸개빠진 노릇을 하기에 앞서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다시 한번 심중히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현시기 공화국은 영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으로 뭉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와 수소탄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공화국의 비약적인 핵무력발전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조차 겁을 먹고 그것을 막을 대책이 없다고 맥빠진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은 남조선피뢰들 자신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피뢰들은 외세에 추종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박책동과 군사적 도발에 계속 매여 달리다가는 상전들과 함께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패배자의 물골, 역사와 진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끼고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반에 한척의 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이다.

1968년 1월 23일, 공화국의 령해에 기여들어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당시 미집권세력들은 《〈푸에블로〉호가 미국공민전쟁이래 바다에서 나포된 첫 미국함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불맞은 이리떼마냥 날뛰였다.

미국은 《보복해야 한다.》,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푸에블로〉호를 빼앗아와야 한다.》고 으르렁대면서 침략무력을 조선동해로 출동시키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공화국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 멸적의 선언이 뢰

성쳤다.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은 미제가 정세를 격화시키며 끌끌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폭탄선언이였다.

조선의 멸적의 기상앞에 미국은 굽어들고야 말았다.

미국은 공화국의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와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사죄문에 서명하였다.

사죄문을 읽고난 당시의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역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웰남신문은 론평을 게재하여 《〈푸에블로〉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는 미제국주의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하며 미국의 강대성에 대

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조선인민의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라고 평하였다.

그 이후에도 조미대결은 계속되어왔으며 미국은 언제나 패자의 수치를 면치 못하였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이듬해인 1969년에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단방에 격추되었다. 1976년 판문점사건 때에도 역시 미국은 훈기를 들고 공동경비구역안의 질서를 변경시킬데 대한 조선인민군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977년 7월과 1994년 12월의 미군직승기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조선인민앞에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의 도발에 의한 첨예한 조미군사적 대결들은 매번 공화국의 승리로 결속되었다.

미국은 지나온 조미대결역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본사기자 전룡진



격추되는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 1969년 4월



공화국령공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다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군 1963년 5월



공화국령해에 침범하여 간첩행위를 하다가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간첩행위를 인정하고 미국정부의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국측대표

조미대결, 세계의 평

지난 세기 조선전쟁을 두고 세계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게서 항복서를 받아낸 조선인민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의 전통을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실지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 벌어진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새겨왔다. 그것은 오늘 날 핵억제력을 보유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앞에서 세계가 격찬을 금치 못해하고 미국이 절망에 빠져 패배를 자인하고 있는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이 미국의 짐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하였을 때 세계에는 대정치지진이 일어났다.

《조선은 트럼프행정부의 위협을 세계면전에서 보란듯이 무시하고 미국의 <독립절>에 시험발사를 강행하여 초대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장엄한 퇴성은 조선이 미국의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임을 증명하였다.》, 《트럼프는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으로 막다른 꿀목에 빠지게 하였다. 현재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조선에 패했다는것을 통감할수밖에 없다.》라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에 핵선제타격을 경고하시였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세계를 깜짝 놀래웠다, 《유일초대국》인 미국에 대해 감히 본토타격까지 공개한 나라는 아직 없었다, 이 선언은 장장 수십년을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끝장내고야 말 총결산의 의지라고 할수 있다, 만약 조선과 미국사이에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이 승리하리라는것은 너무도 지명하다고 전하였다.

미국방성대변인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미국언론들은 《조선의 미싸일 미국을 핵곤경에 몰아넣었다. 트럼프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처했다.》라고 조소하였는가 하면 미국잡지 《포보즈》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고 백악관은 공포속에 빠졌다, 조선은 위력한 강국이 되고 미국은 막빠진 작은 나라가 되었다라

고 조미대결의 승패를 명백하게 밝힌 기사를 실었다. 이런 목소리는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을 때 역시 높이 울려펴졌다. 세계언론들은 공화국이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찬양하면서 조선의 연속적인 강타에 미국은 당황망조하여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미대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였다고 평하였다.

전 미국방장관 폐리는 《조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의 붕괴를 예상하여 정책을 작성하여왔는데 실패로 판명되였다.》고 실토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전직고위관리들도 20여년간의 조미핵대결력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도저히 먹어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어떤 강도높은 제재로도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고 하였다. 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클래퍼 등의 이전 미행정부의 주요인물들까지도 《미국은 북조선의 핵무기를 묵인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비난하였는가 하면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게임은 끝났다. 북조선이 이겼다.》라고 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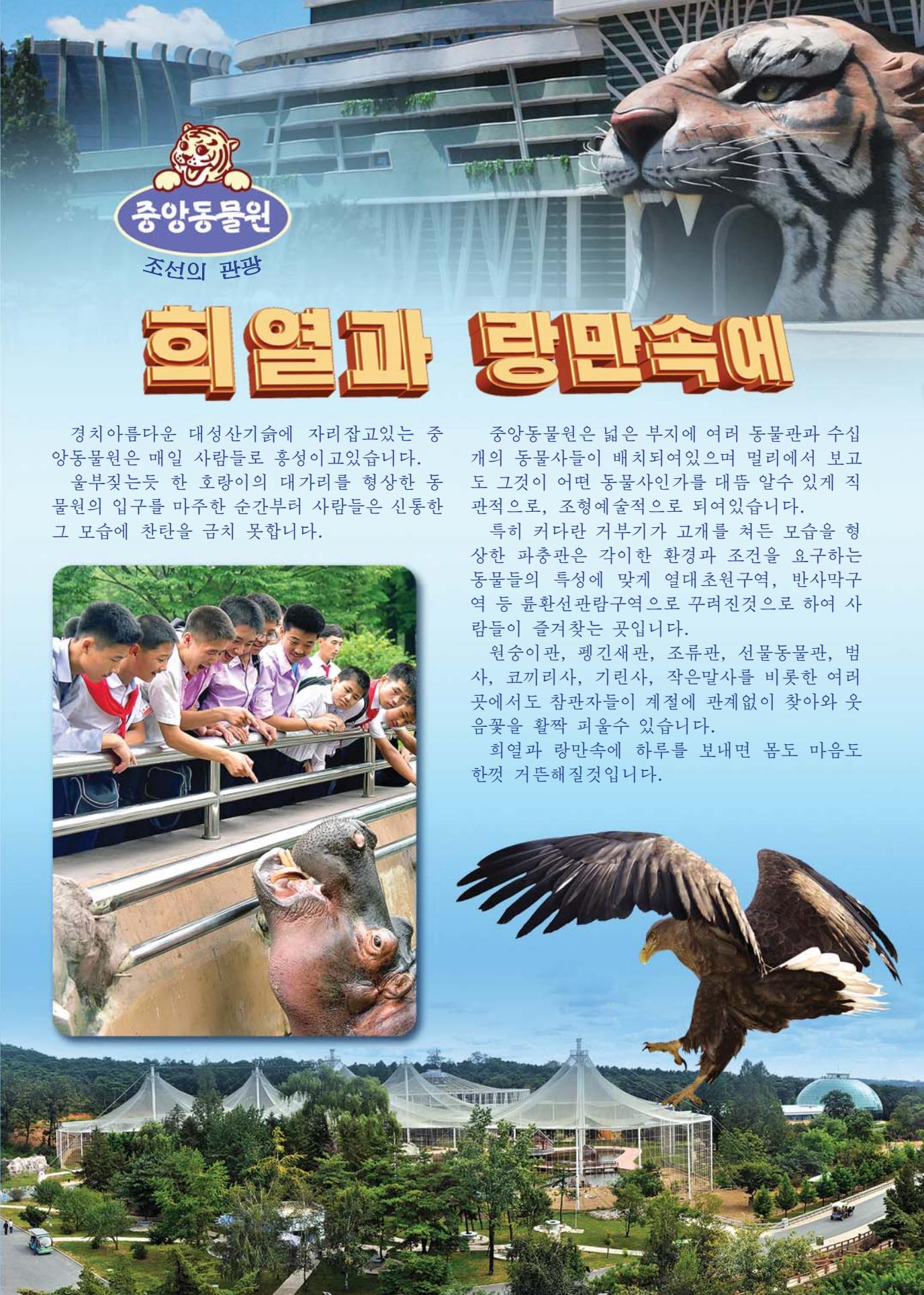
이런 속에서 공화국은 지난해 11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이미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공화국이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하게 되였다.

제반 사실은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까지 공화국을 꾀멸시키겠다고 악담을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조미핵대결에서 패배를 자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늑다리깡패의 객적은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1950년대에 이미 조미대결의 승리를 결정했듯이 앞으로의 조미대결승자 역시 명백한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경치아름다운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동물원은 매일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습니다.

울부짖는듯 한 호랑이의 대가리를 형상한 동물원의 입구를 마주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신통한 그 모습에 친란을 금치 못합니다.

중앙동물원은 넓은 부지에 여러 동물관과 수십 개의 동물사들이 배치되어있으며 멀리에서 보고도 그것이 어떤 동물사인가를 대뜸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되여있습니다.

특히 커다란 거부기가 고개를 쳐든 모습을 형상한 파충관은 각이한 환경과 조건을 요구하는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열대초원구역, 반사막구역 등 둘러환선관람구역으로 꾸려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원숭이판, 펭귄판, 조류판, 선물동물판, 범사,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말사를 비롯한 여러곳에서도 참관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와 웃음꽃을 활짝 피울수 있습니다.

희열과 량만속에 하루를 보내면 몸도 마음도 한껏 거뜬해질것입니다.





모란봉의 겨울 본사기자 임강무

오늘 모란봉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홀륭히 전면되었다.

나무가지마다 흰 눈을 떠이고 아름답게 단장한 설경은 모란봉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